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차례

길을 찾고 있으며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모든 분께	3
요한 서신	5
야고보서	30
베드로전서	31
베드로후서	46
유다서	64
히브리서	77
요한계시록	121
맺는 말	207

길을 찾고 있으며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은 신약성경의 일부를 풀어 설명하는 이야기체로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유다, 야고보의 편지들입니다. 그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제** 말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볼 수 있는 이 오래된 문서들의 원문은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쓴 사람들의 자리에 서 봅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제 방식대로 전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성경을 아직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제 글은 루터 성경(Luther-Bibel)이나 Einheitsübersetzung(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본문보다 두세 배쯤 깁니다.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과 견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본문을 옮기면서 많은 주석과 성경 번역본을 참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처음 쓰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21세기로 건너오는 다리를 놓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주석과 성경 번역본에 감사합니다. 다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니다. 혹시 누군가 제 글에서 자기 생각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분명히 감사를 드립니다.

절 번호, 관주, 각주나 소제목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니다. 장 번호만 있습니다. 편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 보십시오. 그 편지가 하나의 전체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게 하십시오. 장 번호는 무엇을 찾거나 일반 성경과 비교해 보고 싶을 때 길잡이가 될 뿐입니다.

저 자신도 이 작업을 하면서 깊고, 저를 변화시키고, 용기를 주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맑은 샘에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책에도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먼저 성경으로 경험하십시오. 아니면 이 자유롭지만 뜻은 충실하게 옮긴 글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저 혼자 해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은퇴 목사 호르스트 슈트릭커(Horst Stricker)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제 말을 다듬었고, 필요하면 고쳐 주었습니다. 제 원고를 처음 검토해 준 것이 아닌 바르바라 크루핀스키(Barbara Krupinski)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조판을 맡아 준 빌헬름 아델베르거(Wilhelm Adelberger)와 디자인을 맡아 준 토비 슈트릭커(Tobi Stricker)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초교파 운동인 “Kirche für Alle”(모두를 위한 교회)를 위해 나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신약성경에 전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책이 이 목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또 한 권으로 낼 것인지는, 이번 출간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동기를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info@kirchefüralle.de로 보내 주시는 모든 의견을 반갑게 받겠습니다.

Hans-Jörg Ronsdorf, 알고이(Allgäu)의 줄츠베르크(Sulzberg)에서, 2018년 5월

요한 서신

- 영원한 생명 - 지금 그리고 곧
- 영원한 생명의 확신
- 하나님의 빛, 사랑, 기쁨
- 용서 - 한 번으로 영원히!
- 사랑의 새 계명
- 세상과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의 가족
- 믿음으로 얻는 승리

요한일서

예수께서 우리 열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하고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고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지고 껴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우리는 삼 년 동안 그분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고유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능력과 충만함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도들과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증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아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자기 안에 지닌 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진 우리에게 닿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심장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을 누립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말이지만,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을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우리,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서로 속해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이 관계와 결속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 있습니다.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이 하늘 가족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귄과 하나님의 가까우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참지 못하시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사랑 없음, 감사하지 않음, 이기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그분의 선한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은 하나님 안에 - 그리고 예수 안에도 -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어둠이나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방향 없이 헤매게 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태를 죄와 불의라고 부릅니다. 빛이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러듯이 -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서로 **그리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살아 있고 변함없는 **사귄**을 누립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집의 기쁨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거기 머물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거둬 실패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영원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단 한 번 흘려진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는 동안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지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며 보증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보십니다. 오직 그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옛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지켜 주었던 유월절 어린양의 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의식하지 못한 죄에서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앞으로 또 짓게 될 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와 현실을 비켜 가며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이 거짓말과 자기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놓여납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용서를 받습니다. 깨닫고 자백하는 것, 곧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죄를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 있는 사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깨끗하게 하는 피 아래 사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의 사귀에도 들어갑니다.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해 선물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의식하지 못한 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것을 요구할 권리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예수의 귀한 피는 그분의 거룩하고 죄 없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해아릴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 피에 근거하여, 예수의 희생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절로 죄 없이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기기만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고 죄 없이 산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2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분명한 일이고 굳이 쓸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분과의 사귄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 그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귄에는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보고 깨닫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귄도 끊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주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로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보증인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우리 자신은 결코 우리 죄를 지워 없앨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 단 한 번뿐인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불의한 것을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거슬렀던 우리의 거룩하지 않고 불의한 모든 행위가 예수 안에서 용서되고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 값져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워 없앨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누군가 예수와 살아 있고 삶을 바꾸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행하지 않고, 행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새로웠던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옛 계명이고,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영원히 **새 계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사랑**의 계명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명은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참으로 그분 안에 살아 있었고, 오늘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만, 오직 그렇게 해서만 우리는 그분처럼 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써 새롭고

장차 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 마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환히 비추실 날이 옵니다.

이 빛 가운데 산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긍휼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다른 누구보다 알고 사랑하기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악한 자, 곧 마귀를 이겼습니다.

아직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에게 제가 편지를 쓴 것은,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앎,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을 지금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제가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 났습니다. 마귀가 퍼뜨리는 모든 거짓 가르침과, 그가 미혹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행하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참된 사랑은 하나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삶을 바라거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가 다스리는 사회는 특히 세 가지에 휘둘립니다.

첫째는 모든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고 그것을 마음껏 채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든, 출세욕이든, 성적 욕망이든, 명성이든, 중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유혹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를 말 그대로 눈에서 놓쳐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허세, 교만, 자기 과대평가와 남과 비교하기, 따돌림, 그 밖의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왕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끝날 것입니다. 이 멸망을 피할 유일한 구원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세상과 대비되는, 보람 있는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차 올 세상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그곳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와 함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거짓 구원자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며 예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힙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에게서, 우리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 무척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처음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가 아니시며 아들을 가지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진리로 굳게 붙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특별한 약속이 해당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참되게 하신 약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죄와 죽음은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이 영광스럽고 생명이 걸린 진리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으려는 사람들, 곧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받은 기름 부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머무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무엇이 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곁에 가까이 머무십시오.

이제 저는 앞을 내다봅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할 데 없는 잔칫날, 우리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를 모든 감각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날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이미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열심히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사실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누군가 예수처럼 의를 행하며 사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3장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거나 의심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이 장차 지니게 될 특성들이 겉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머지않아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놀랄 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소망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타협 없이 우리 삶에서 없애도록 날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미 그분을 점점 더 닮아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목표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 있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정부 상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의 빛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이 죄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빛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다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들을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어떤 식으로도 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사람은 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분을 자기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 그분께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색 지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들을 흑과 백처럼 분명하게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삶에서 의로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자기 삶의 목표를 놓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늘 해 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고 이 무정부

상태를 퍼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미혹하여 똑같이 하게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마귀에게서 영향을 받고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는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 그의 모든 악한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좌우되거나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그분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이 죄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무도 자기의 참된 본질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났거나 마귀에게서 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났거나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이웃 사랑으로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와 그분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가장 끔찍한 예는 가인에 관한 오래되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마귀, 곧 악한 자에게서 나와 행동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한 모든 일은 악했습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의로웠습니다. 아벨은 마귀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악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것은 미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참되고 진정한 생명의 표시는 우리가 이웃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인처럼 살인자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든, 머리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비록 잠깐은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본보기**,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재는 기준을 우리는 예수에게서 봅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거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희생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산다**는 것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무언가를 가진 제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 곁에 서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도우려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고 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 없이 사십시오.

우리 마음은 이웃을 돕는 대신 우리가 내어 주어야 할 것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 삶과 우리 소유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주는 것을 비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여기거나, 말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명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핑계를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런 느낌을 이겨 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웃을 너그럽게, 자기를 내려놓고 돕기 위해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고 기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기꺼이 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계명이 소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분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면 그분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심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정말로 모든 것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에 두라는 것입니다. 살 때에도, 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이 계명에 속합니다.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언하시고, 그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영은 그것을 증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분이 언제나, 모든 시대에 걸쳐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셨습니다.

4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거짓말쟁이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거짓의 영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영은 예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셨고, 언제나 사람으로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결에서 영원한 아들이셨고 지금도 언제나 그러하신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언젠가 공개적으로, 크고 요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오늘 이미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없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온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말하든지, 아니면 거짓과 미혹의 영이 말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영원한 본질은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심으로써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 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대를 넘어서, 받을 자격도 없이 사랑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살아 있고, 일하고,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그분의 무언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해 이 살아 있고 친밀한 결합과 사랑의 사귀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보았고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이 있고 그분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본질은 가장 순수하고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신도 이렇게 자신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부를 규정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존재 **모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썸을 하게 될 **심판**의 날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고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100퍼센트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는 결코 하나님 사랑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심판 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일종의

심판이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웃도 사랑한다는 계명입니다.

5장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은 사랑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알고 행하게 합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거부하는 사회는 우리 마음도 정복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히 서서 승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승리를 굳게 지키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차지하려는 세상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뿐입니다.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그를 다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두세 증인을 댈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물로 받으신 세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고 그래서 믿을 만합니다. 그것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증인이 증언한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한목소리의 증언을 자기 마음에 품고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하신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은 중요하고 믿을 만합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신뢰하며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들을 모셨고, 그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영원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며 바라거나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도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쓴 모든 것은 우리를 그분 앞에 있도록 초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근심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그분의 다정한 얼굴 앞에 있도록 초대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뜻, 곧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든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알맞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이미 잊어버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나 자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버리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예 응답하시면, 그 기도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생명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식적이고 살아 있는 사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의 사귄으로 돌아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죄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온 세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르든 거짓 선지자가 저지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죄가 그의 사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죄일 수도 없습니다. 이 편지에서 저는 분명하게 하려고 진리를 날카롭게, 뚜렷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흑과 백의 대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더 강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건드리지도, 망가뜨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 곧 마귀 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차이, 아니 이 대립은 우리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본질, 그분의 빛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는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참되신 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나 우상들**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이 서고 무너집니다.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떼어 놓을 수 없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아무도 놓치거나, 하물며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진리 앞에서, 저는 편지를 마치며 이것만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작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은 우상이며 언제까지나 우상입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나 우리가 매달리는 재물 같은 “내면의” 우상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가운데서 용납되거나 떠받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한이서

장로인 요한이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목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씁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에게 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진 진리가 이 사랑의 근거요 방향이요 척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의 사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날마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행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지켜 줍니다. 오늘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일부라도 또는 전부 부인하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이며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공범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일한 열매를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교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상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부터 드러난 것을 넘어서지 않을 때에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평소에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그에게 인사하거나 그를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순회 교사가 여러분에게 오면, 먼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확인이 되면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분명한 입장을 취하십시오. 여기에는 결코 중립이나 무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상 전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써야 할 것이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기쁩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귄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함께 지내는 이곳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문안을 전합니다.

요한삼서

장로, 곧 교회의 어른인 나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에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가 모든 일에 잘되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대의 걸사람도 속사람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대 앞에 좋고 평탄한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만난 형제들이, 그대가 얼마나 **진리**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지 전해 주었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그대 마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맺히고 있어 기쁩니다. 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고, 이제 그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들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들을 대한 방식은 진리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 우리 가정 교회에서 그대가 손님을 대접하며 보여 준 신실함을 증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선교사로 길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역이 후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후원에 기대지 않고, 언제나 그곳의 믿음의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 동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 의무가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선교사들만 들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저는 그대가 속한 가정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우리의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옳음**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의 이런 거부하는 태도를 일깨우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가 근거 없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섬기며 목을 곶을 찾는 형제들을 그냥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내주려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정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런 행동에 자극을 받아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간단하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테메드리오도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인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 나서고, 진리에 맞게 삽니다. 우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써야 할 것이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곳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친구들 하나하나에게 우리 대신 직접 문안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야고보서

- 믿음의 시련
- 말씀을 행하는 사람
- 자유와 사랑의 왕의 법
-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 믿음과 행함
- 작은 혀 - 큰 영향
- 위에서 오는 지혜 - 아니면 아래에서 오는 지혜
- 세상과 벗된 것
- 가까이 온 주의 강림
-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자
- 서로를 대하는 태도
-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

야고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며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흠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모두에게 편지합니다. 흠어져 사는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켜지고 있으며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갖가지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놀라운 일들로 시험을 받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가난, 박해로 인한 부당한 고난, 외로움, 실망, 그 밖의 많은 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뻐할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와 굳건함을 길러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련 가운데 약하다고 느끼고,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질문이 생기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시련이 처음 여러분을 덮었을 때와 달리, 여러분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특히 믿음이 시련을 겪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구하면 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질문과 실수 때문에 우리를 꾸짖는 것은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실제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과 의심, 두 마음을 품고 속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이 흔들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의심부터 맞서십시오. 그 의심은 거인으로 자라서 결국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고 낮은 형제자매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자이고 넉넉한 형제자매는 자기의 재물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해와 뒤따르는 뜨거운 바람에 마르는 꽃과 같습니다. 풀처럼 말입니다. 꽃은 시들고 꽃잎은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자들과 그들이 이룬 성공도 시들 것입니다. 중요해 보였던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나 버립니다.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시험받고 시련을 겪을 때 굳건히 서서 인내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버틴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이 승리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악으로 이끄는 유혹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악에 의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악으로 유혹받거나 미혹될 때 하나님께 유혹받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당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시련을 겪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으실 수도 없고 악으로 미혹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도 결코 누군가를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이끄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좇는 욕심에 끌려 악으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끼를 물고 이제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굴복하면 죄가 마치 출산처럼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가 다 자라면, 말하자면 어른이 되면, 죽음을 낳습니다. 잡초처럼 뽑히지 않고 무르익는 죄는 거의 어김없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삶에서 이미 그렇고, 영원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귄이 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심는 사람은 죄와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이끄는 욕심에 굴복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심과 쾌락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에 굴복하는 것은 죄가 제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의 본성,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들에게는 변화가 있어도 그분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는 그분의 뜻에도 해당합니다. 그분의 본성,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변함없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구속하는 새로운 출생이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머지않아 올 모든 새로워짐의 시작을 증언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특히 성내기는 더디 하십시오. 무언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당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느낄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갑작스럽고 격렬하고 경솔한 분노는 사람 사이의 일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노를 터뜨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단호하게, 그리고 끝까지 결별하십시오. 비열함, 악한 마음, 넘쳐흐르는 온갖 악함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출생과 함께 여러분 안에 DNA처럼 심긴 이 말씀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우리에게 장차 올 생명을 선물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본 것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들여다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뀌어야 할 것을 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율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꾸준히,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동시에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경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슬프고 생존이 위협받는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 곁에 서 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도움을 받을 길 없는 모든 사람과 집 없는 모든 사람을 돕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는 세상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 버리고 의식적으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2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실천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당에 누군가 화려한 옷을 입고 두꺼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옵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더러운 옷이나 꽤 낡아 빠진 차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겉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이리 오셔서 여기 편히 앉으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저 뒤에 서 있어요.” 또는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아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모순 그 이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생각 없이 반응하여, 있지도 않은 차별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한다는 인상까지 줍니다. 게다가 자기 이익을 위한 교활한 계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분의 장차 올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어쨌든 그분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행동으로, 세례 때 여러분 위에 불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공연히 모독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곧 만왕의 왕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그분의 **왕의 법**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의 재산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범법자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율법의 계명 하나에서만 걸려 넘어져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유**의 율법으로 판단받을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도록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무자비하게 대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 없이 내려질 것입니다.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공흠은 어떤 정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흠에는 판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흠을 베푼다면 심판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증언하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정하게 행동하고 공흠의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없는 자기 믿음에 기대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그대의 믿음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그대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주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 곧 악한 영들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자기들을 지으신 분 앞에서 쫓힙니다. 그들에게서도 믿음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대의 믿음은 죽은 것, 생명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여,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바치려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대는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의 베틀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 있고 구원하는 믿음을 비추어 보여 주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죽어 있고 긍휼의 행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벽에 살던 창녀 라합도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는 두 정탐꾼을 맞아들여 숨겨 주고 다른 길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3장

교회에서 **교사**나 설교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섬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목받는 자리에서 서거나 특별히 관심을 받고 싶은 동기는 유혹적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연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의 말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의 삶에서도 보여 주어야 할 더 큰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주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 죄를 짓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로 그렇습니다.

말하는 데에서, 우리 입술을 넘어 나오는 그 많은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온몸을 다스리고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부리는 일에 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의 온몸을 이끕니다. 그렇게 말은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또는 바다 위의 큰 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들은 강하고 거센 바람에 밀려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일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혀도 그와 비슷합니다. 혀는 불의로 가득한 한 세계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혀는 온 세상에 불을 붙였고, 지금도 계속 불장난을 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많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는 악하고, 교활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말로 세상에 끊임없이 불을 지릅니다. 혀 자체는 모든 악의 총체인 지옥에서 불이 붙습니다.

땅과 공중과 물에 사는 모든 짐승을 사람이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어떤 사람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릇되거나 옳지 않은 말이 한 마디도 입술에서 새어 나가지 않을 만큼 혀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누가 그것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같은 샘에서 쓴 물과 단 물이 동시에 솟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화과나무에 올리브가 열리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그것을 자기 삶에서도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곧 선한 행실과,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쓰라린 시기와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치 지혜롭고 총명한 것처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반대이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이끄는 이 지혜는 위에서,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땅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정욕에 속한 지혜, 더 나쁘게는 귀신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는 아래에서 오며 파괴합니다. 그것이 퍼지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처럼 완전히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화평합니다. 친절합니다. 기꺼이 배웁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많은 선한 것으로 가득하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화평을 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화평을 거둘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4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와 원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소유와 재물을 탐하는 여러분의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며 거둬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탐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인하고 시기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다투고, 이웃을 거슬러 계획을 세우고 싸움을 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손에 쥐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도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끌려 이기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고 혼자 누리려는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이며, 세상과 벗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거부하는 사회와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어떤 일에서든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편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계명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생각에 자기를 묶는 사람은 그 일에서 자기를 세상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괜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한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께서는 질투하실 만큼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애정을 다른 무엇과 나누실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인 여러분이 결코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눌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충성을 절반만 받으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눠지 않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그만큼 더 큼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귀와 그의 유혹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시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기적인 동기 없이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까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인들이여, 불의를 행한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그만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정말로 진지해지십시오.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두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옛것은 뒤에 두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뉘우침과 돌이킴은 가장 좋은 앞날을 열어 주는 깨달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험담으로 서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자기 이웃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는 사랑의 왕의 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 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재판관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하는 것은 그대가 아닙니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며,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법 위에 올라설 때, 여러분은 바로 그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심판은 오직 입법자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제 **사업 욕심**으로 가득하여 이익을 내려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좋은 거래를 하고 돈을 벌겠다.” 사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김이나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불확실함을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이 말 아래 두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자기 성공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부풀리는 것은 악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주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시고 선물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군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5장

거리낌 없이 재산을 불리며 재산에 신뢰를 두는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여러분의 화려한 옷은 좀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 것입니다. 그 녹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재물을 끊임없이 불리는 것 말고는 더 나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몫으로 챙기고 지불하지 않은 일꾼들과 품꾼들의 품삯이 주님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절망한 추수꾼들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그 외침은 들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호화롭게 흥청망청 삽니다. 그들에게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은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여러분은 도살할 날을 위해 살찌우는 짐승처럼 자신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잔칫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일꾼들과 의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의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그들은 맞서지 않습니다. 그분처럼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여러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눌린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강림**까지 참으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이 잘못된 일들과 불의가 끝납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귀한 열매를 거두기를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참고 견디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난을 견디고 버텨 낸 일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리지 않습니다. **욥**도 이 일에서 본보기였습니다. 가장 큰 잃음과 고통과 슬픔과 병과 의심과 탄식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그의 고난을 끝내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심과

공홀이 풍성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제자매 여러분, 법정에서 요구받지 않는데 스스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말할 때 그냥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맹세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는 그냥 믿을 수 있는 “예”가 되고, 여러분의 “아니요”는 그냥 믿을 수 있는 “아니요”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솔한 맹세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로 위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환난 중에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심하게 **병들었다면**, 그는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자기에게 오게 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 중병 든 사람을 굽어보며, 그가 낫도록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상징적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굳은 신뢰로 드리는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 병에 이르게 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용서받도록 그것을 숨김없이 자백해야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는 것은 몸의 치유를 넘어 구원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면,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이런 잘못의 결과였다면, 여러분은 나을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 장로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 큰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옛 선지자 **엘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지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하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삼 년 육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왔고, 땅이 다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누군가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길을 잃은 신자를 깨닫게 하여 믿음으로 다시 데려오고 예수와의 사귄을 회복시킨다면, 그는 자기가 한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했다는 것을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에서 생겨난 수많은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 하늘의 유업을 향해 가는 길
- 우리를 단련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 끊임없이
-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어머니의 젖
- 부당한 고난 -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일
-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을까?
-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 구속자이자 본보기
- 지옥과 죽음과 마귀를 이긴 십자가의 승리
-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
-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

베드로전서

나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아스포라, 곧 흩어져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씁니다. 로마의 여러 속주 곳곳에 -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 사는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고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옛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채우고, 이끌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합니다. 함께 말입니다. 찬양의 말과 노래로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그분의 크신 **공훈**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절망과 공허에서 산 **소망**으로 옮기셨습니다 -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그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썩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고, 거룩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곁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받아 그 안에서 영원히 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굳은 확신입니다.

유업이 나누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목표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지 않은 이 길에서 그분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곧 구원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봄으로 나아가게 될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없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 슬픔과 체념을 가져올 수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와 따돌림을 통해 겪는 혹독한 시험과 검증, 그렇습니다, 불같이 뜨겁고 강렬한 우리 믿음의 **단련**은 금을 녹이는 일에 견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수하고 빛나는 금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단련된 여러분의 믿음도 빛나고, 예수와 함께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분과 삼 년을 함께 다녔고 부활하신 분도 본 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충성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크고 깊은 기쁨을 받고 느낍니다. 하늘에서만 올 수 있는 그토록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대한 구원의 날을 내다봅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 땅의, 시련받는, 아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건져 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옛 선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언으로 내다보면서 찾고 살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뒤에 올 영광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직접 겪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는 세대들을 위해 이것을 기록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처럼 성령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셨습니다. 땅 위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구원과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천사들까지도 -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 그것에 대단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옛 선지자들이 이미 그랬던 것처럼 그 비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비로소 온 이런 귀한 것들을 듣고 믿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귀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고 집중하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박해와 적대의 압박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은혜에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 삶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해지십시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해지십시오. 레위기 11장에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민권 없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종이나 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낡고 헛된 삶의 방식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을 알아도 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 구속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구속 자체도 없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분은 흠 없고 완전한 제물인 어린양처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마지막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께 보좌에서, 자기 오른편에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과 모든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둡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 깨끗해졌습니다.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진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메시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끈기 있게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릇된 동기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처음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씨, 곧 다시 썩어 없어질 것만 낳는 씨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습니다. 이 씨는 살아 있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시든다. 꽃은 떨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바로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안에 새 생명과 믿음을 낳는 창조의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2장

그렇다고 우리의 옛 존재에서 나온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든 것을 뒤엎기 전에 잡초처럼 우리 삶에서 뽑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의와 악한 속임수, 위선과 속을 갇아먹는 시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하는 험담과 비방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 갓난아기들처럼 - 영적이고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목표, 곧 구원을 향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더 마시십시오.

그분, 메시아 예수께서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늘 그분을 향해 우리 자신을 맞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 그리고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 그분이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도 살아 있는 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통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말과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모퉁잇돌을 둔다.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돌이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보배로움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여긴 이 돌이 집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드는 돌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걸림돌,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심판이 오면 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택하셨는지 보십시오. 각자 홀로가 아니라 함께 택하셨습니다. 공동체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함께일 때만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택하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고 거듭난 가족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의 혈통도 제사장의 혈통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을 섬깁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하늘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혈통으로 속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도 모르는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권세도 그 백성을 그분에게서 빼앗거나, 굴복시키거나,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덕과 큰 일을 선포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나섭니다.

그분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자기에게로 - 그분 사랑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호세아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게 바뀌었고, 여러분이 이런 영예를 얻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나그네요 손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멀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새로워진 우리 마음과 싸웁니다. 그 마음을 흘려서 다시 빼앗으려고 싸웁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선한 행실로 가득한 삶을 사십시오. 그들은 무엇이 존경받을 만하고 선한지 정확히 알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더 잘 알면서도 여러분을 악한 사람이라고 비방할 때에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들이 언젠가 큰 어려움에 빠질 때, 힘든 날들이 닥칠 때, 그들은 -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에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인간 권위인 황제에게든 복종하십시오. 아니면 범죄를 처벌하고 추적하도록,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도록 황제에게 권한을 받은 총독들에게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해, 그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비방이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본이 되는 행동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이며, 억지로가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악을 행하기 위한 핑계나 가리개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황제를 존중하십시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여, 여러분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온화하고 선한 주인에게만이 아닙니다. 비뚤어지고 까다로우며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과 불이익을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인에게 맞서다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일에 끈기 있게 머물다가 모욕을 감수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인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이시며,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모범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 여러분은 그때의 우리처럼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 그리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고, 숨어서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했고, 거짓과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심한 모욕을 받으셨지만 - 맞받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아무에게도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의롭게 심판하실 분, 곧 하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셀 수 없는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 저주와 고문의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 옛날 안수를 통해 **죄**가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이 도살되어 제단에 놓고 거기서 태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우리 죄를 떠맡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우리의 옛 삶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의를 위해 삽니다.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그 짐에서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받으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건강해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적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그대로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온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헤맸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신실한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지켜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십니다.

3장

복종하는 태도는 아내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내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존중함으로써 그를 예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존중하는 행실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룩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참된 단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눈길을 끄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단장은 온유하고 절제된 성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내린 성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동시에 남편에게 복종했던 거룩한 여인들의 단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그를 주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행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겁먹지 말고 한결같이 그렇게 사십시오.

남편인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꼭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내에게 어떤 공감과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지 살펴보십시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아내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아내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더 상처받기 쉽고, 흔히 몸이 여러분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내도 여러분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면에서도 남자인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함께 제때에 하나님의 공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목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서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참된 사랑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가득 대하십시오. 공해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당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십시오 -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곧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함에서 여러분은 지금 벌써 축복하고 예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삶을 즐기고 좋은 날을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킬지 몰라 매 순간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누구에 대해서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악에서 돌아서서 그냥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구해야 하며, 마치 그 평화가 달아나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끈질기게 그 평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법칙과 같습니다.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의인을 보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게 되며, 언젠가 그분의 진노를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그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정당하 이유라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품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신 메시야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에도, 메시야께 둔 여러분의 소망을 알게 기꺼이 증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다르냐고, 왜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편지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쓴 그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잘 설명하려고 애쓰십시오.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십시오. 대화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변호하는 일이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묻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 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올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쁘게 비난하거나 누명을 씌울 때, 그들은 언젠가 기가 죽어 물러서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선한 행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어쨌든 더 낫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를 바라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짓지 않으신 죄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곧 우리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낫선 땅에서, 죄의 차갑고 외로운 밤에서 그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임재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상처 입고 고문당한 그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죽인 자들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영을 통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 죽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 안에서 그분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저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들, 곧 노아 시대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노아 시대에 - 아직 홍수가 나기 전에 -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주님의 눈에 큰 죄였습니다. 그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도 온 것입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자식인 거인들은 홍수 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끝과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너희의 계획과 너희 후손인 귀신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옥과 죽음과 마귀를 이긴 **승리자**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큰 **홍수**의 죽음의 물을 지나 적은 수, 그렇습니다, 겨우 여덟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옛 세상에서 깨끗해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역시 적은 수인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세레**, 곧 물 안에서 여러분에게 홍수 때 일어난 일이 비추어 드러납니다. 구원입니다! 겉으로의 구원, 이를테면 겉의 더러움을 씻는 종교 의식의 정결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레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선언입니다. 마음의 결단,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는 서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인자이신 그분께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세레로 인 치고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우두머리, 곧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세레는 그들의 최종적인 **패배**를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은 그들이 아직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을 바꾸었고, 영원히 승리자 예수께 속합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몸으로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예수를 따르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에

자신을 내맡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죄의 유혹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유혹은 그때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은 시간을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욕심 속에서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멋지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와 주류가 정해 주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리낌 없는 방탕이 여기에 속합니다. 술 취함,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한 잔치가 그렇습니다. 신전 매춘이 따르는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이 헛되고 해로운 짓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방종 속에서 찾는 충족과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삶의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런 삶의 방식과 비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아직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미 죽은 모든 사람에게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살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이 있으면 고난으로 가득한 삶과 죽음조차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좋은 소식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없이 죽어 심판 날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옛것, 썩어 없어질 것, 죄 된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립니다.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종교적인 도취에도 세상적인 도취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럴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 혼자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참되고 변함없는 **사랑**을 품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사심 없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쏟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사랑은 많은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거둬 끄집어내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맞아들이는 대접으로 증명하십시오. 수고와 비용을 두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십시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신실한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덕을 세우도록 다루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누가 말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로 인정되고 들려야 합니다. 누가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만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이 불같은 시련처럼 여겨지더라도 놀라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내가 처음에 이미 여러분에게 쓴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옛날 메시아께서 겪으신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해도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온 세상 앞에 능력과 영광 가운데 눈에 보이게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여러분은 환호하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높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께서 여러분 모두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지켜 주시는 임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둘러쌉니다. 그 옛날 영광의 구름, 곧 세키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그 구름은 눈에 보이게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땅히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또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주체넘게 끼어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앞에서 말한 경우들처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옛날 그분의 백성에게서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 주고,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 삶에서 씻어 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단련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미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은혜의 좋은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남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의인인 우리도 간신히, 어렵게 구원받아 목표에 이룬다면,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모든 악함과 허물을 가진 자기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와 맡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가장 잘되기를 바라는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체념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힘을 얻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5장

하나님의 양 떼, 곧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돌봄과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책임지는 것은 특히 **장로**인 여러분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목자요 영적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장로 된 사람으로서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격자로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분의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장로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 떼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돌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목자장**, 곧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영광의 승리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장로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들은 경험에서 여러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것을 살피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 존중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결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 솔로몬이 잠언 3장에서 이미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두신 삶의 형편을 받아들이십시오. 불만을 품지 마십시오. 부당한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삶을 힘들게 하는 일 때문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창조주를 신뢰하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짐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며, 늦어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짐을 그분께 맡겨도 되고, 또 맡겨야 합니다! 그분만큼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처럼 여러분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늘 굳게 붙드십시오. 처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마귀가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찾으면 덮칠 것입니다.

그는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는 온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가장 큰 안전과 격려는 이 깨달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자기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잠시 고난의 때가 지나면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단단히 뿌리내린 채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신실한 실루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서 있고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 썼습니다 - 고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 영적인 아들인 마가도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 안에 뿌리내린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 믿음 안에서 자라기
- 믿을 수 있는 말씀
- 예언의 말씀
- 거짓 교사들
- 옛 땅과 새 땅
- 하나님의 심판과 오래 참으심

베드로후서

시몬, 별명이 베드로인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 오직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또한 그분이 보내신 사람, 그분의 사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의 우리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예수께로부터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모두 오직 그분,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것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더욱 많은 은혜와 도움으로 넘치도록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 복을 받으십시오. 특히 박해와 적대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한 삶의 모든 형편에서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 그 능력은 특히 그분의 창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구속하시는 행동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뜻밖에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신적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선물로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크신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영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본성, 자기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무언가가 보이니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몰락과 멸망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사로잡는 삶의 탐욕과 결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깨지기 쉽고 썩어 없어질 삶의 방식을 뒤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향해 가며 살고 있는 멸망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에서 온갖 **부지런함**과 수고와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보여 주신 그 단호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결연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려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결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점점 더 알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다시 **절제**와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자기 통제와 절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풀어놓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절제는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평생 단단히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내**와 굳건히 서 있는 일에서 여러분에게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시 부르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사귀를 구하고 그 사귀를 살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모아 두신 모든 사람과 맞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심 없이 **사랑**하려 합니다.

가장 높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중요한 성품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들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고, 여러분을 점점 더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참된 영적 **성장**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런 덕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 지식은 결코 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비길 데 없이 영광스러우셔서, 말하자면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중심이요 끝이십니다 - 우리 헌신의 처음이요 중심이요 끝이기도 하십니다. 마음으로 알아 가는 이 자라는 지식은, 내가 이미 썼듯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점점 더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 예전과 달리 - 거의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눈이 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구원자의 영광을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근시가 되어 눈을 가늘게 뜰 뿐이며, 그렇습니다, 빛을 꺼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세레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이전의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예전처럼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세례에서 이전의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쌓아 가는 죄들이 그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붙잡으신 것만큼 단호하게, 꼭 그만큼 단호하게 예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하고 기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의 다가올 **나라**에 승리와 환호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길 데 없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인 이 나라의 문은 지금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 있고 믿을 만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마음을 쓰며 언제든지 이 영광스러운 전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핵심적인 성품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연약한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일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여러분을 깨어 있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필요하면 흔들여 깨우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이 땅의 죽을 몸을 장막처럼 걷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곧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을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도록 언제나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특히 내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있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속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신화나 교묘한 생각이나 꿈이나 감정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장차 오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전했을 때, 우리는 **목격자**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눈 덮인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우리 눈으로 겪고 본 것만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빛나는 광채에 둘러싸여 변화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처럼 빛나셨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영광의 광채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가 내 마음의 기쁨이다.

바로 이 산에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 큰 홍수 전에 하늘에서 내려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류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다시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 보이지 않은 온 세계에,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끝나 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세 제자는 경외감에 휩싸여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모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취를 보고 들은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둡고 침침한 곳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곳은 예수를 거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이 밤은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산에서 예수를 그렇게 보았을 때 이미 밝은 **새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막을 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미 아침이 밝아 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밤을 사랑하고 빛을 꺼립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다가올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게 인도받고 이끌려서 그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굳게 붙드십시오! 그들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 전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의 책들에서 발견합니다.

예언의 말씀, 곧 예언들의 총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직접 움직여지고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깨달은 것을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배의 돛에 불어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가듯이, 그들은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자기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이 자기만의 이성과 자기만의 말을 가진 인격체로서 그분이 전하고자 하신 것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2장

분명히 짚어 두고 싶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제멋대로 하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에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당파와 이단 같은 무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관련된 모든 사람,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멸망의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입니다. 이미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짓이 그토록 뻔한데도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의 길을 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 일과 더 이상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에 대해 속았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의 재산과 돈을 **탐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넘어가는 속이는 말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갑니다. 이런 짓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천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감시자들은 땅에서 악한 의도를 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결혼했고 그 결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거기서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결합에서 난

자식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땅에 큰 악과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기 오래전에 그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져 사슬에 묶였습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실 수도, 묵인하실 수도 없다는 예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 전체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죽음을 가져오는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의도로 낳은 많은 거인들 위에도 내리셨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의로웠고, 그는 하나님의 의와 다가올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 모두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 화를 면했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가 되는 또 하나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재가 된 일입니다. 그곳에는 의로운 롯이 살았는데, 그는 그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폭력과 폭력을 일삼는 태도, 하늘의 천체를 섬기는 일,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과 맺은 관계가 건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보고 함께 겪어야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모든 자들과 미혹받은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지 보여 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분은 그들이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렇게 하십니다.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늦어도 그들이 죽은 뒤, 심판 날에 그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자기 욕심대로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칩니다. 그들은 자기가 순종해야 할 다스리시는 분,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멋대로인 자들은 하늘의 권세들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과 달리, 지위로 보아 이 하늘의 권세들보다 낮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들에 대해 모독하는 판결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계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독하는지, 무엇과 맞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살되려고 길러지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타락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를 좋아합니다. 일하는 대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임수 속에서 뒹굽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 식사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며, 그것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자기들과 간음할 여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큰 위험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찾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 - 그것이 그들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곧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점쟁이의 샅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려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뼈아프면서도 놀라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사람의 말로 그를 꾸짖었고, 그렇게 선지자의 어리석음을 막았습니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았지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쓸모가 없고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어둠 속의 캄캄함만 남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말로 약속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들이 오직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감춥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막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꾀고 미혹합니다. 그들은 큰 자유를 말하며, 믿음이 아직 아주 어린 사람들을 그것으로 끌어들이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자기 타락의 종입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입니다. 그들은 종처럼 자기 타락에 매여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막 세상의 미혹과 그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과 붙들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미혹 때문에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세상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간다면, 그들의 형편은 이제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얼마나 나쁜지, 그들, 곧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의와 진리의 길을 아예 알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이미 알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슬픈 경우에는 잠언의 말씀이 들어맞습니다. 개는 전에 토한 것으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먹습니다. 이 속담도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방금 씻긴 돼지가 다시 자기 똥 속에서 뒹굽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이것이 벌써 여러분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에 호소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가리킨 선지자들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 곧 여러분의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늘 거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강림**은 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것을 일부러 못 본 체합니다. 처음부터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을 물에서 나누셨고, 땅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도 나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옛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로, 그리고 땅에서 터져 나와 모든 것을 뒤덮은 엄청난 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처음과 똑같이

머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에서처럼, 갑자기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의 흐름에 개입하셨습니다. 홍수가 그때의 옛 세상을 뒤덮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쓸어 내어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하늘과 오늘의 땅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 다가올 심판 날의 불을 위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조롱하는 자들의 멸망을 뜻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수가 확실히 왔던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미 얼마나 오래 걸렸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하는 질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땅의 시간 척도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하루는 우리에게 천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 년은 그분께 단 하루와 같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오심을 늦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일부러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고 - 아니면 어쩌면 아예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민족들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고 돌이킬 시간을 넉넉히 주십니다.

약속은 변함없이 남아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오는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뜻밖에 올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적을 바로 그때 올 것입니다. 이날은 엄청나고 단 한 번뿐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반역한 하늘의 권세들이 심판을 받고, 땅 위의 하늘은 요란하게 타오르는 굉음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땅과, 사람들이 그 위에서 저지르고 만들어 낸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하자면,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내맡겨질 것입니다. 지속되지 못할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심판의 불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녹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만이 그 땅 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죄에 빠진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비뚤어진 일, 그리고 큰 홍수 이전 한 세대 전체의 악함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일의 예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오래 남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도록 사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불의 심판을 견뎌 낼 것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날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늘 권세들의 모든 초자연적인 반역이 제거되고, 하늘은 불에 휩싸여 타오르며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삼키는 이 불의 심판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옛 땅은 심판 가운데 깨끗해질 것입니다 - 죄인들과 죄와 그 모든 결과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 옛날 홍수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을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에 견줄 수 있습니다. 땅은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곳은 - 오늘과 달리 - 완전한 **의**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아는 땅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 땅은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죽음, 온갖 저주, 불의, 질병, 전쟁, 미움, 굶주림, 가난, 두려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또한 기쁨 없음, 외로움, 우울, 내면의 공허에서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땅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전망, 그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이 전망이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흠 없고 티 없이 빛 가운데 그분 앞에 서도록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평안 가운데 - 아무 두려움 없이 - 만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닥치는 심판을 지나, 새 세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에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과 여지를 아직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편지들에서 지혜가 가득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때로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비틀고 잘못 이해합니다. 하기가 그들은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게 하며,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내 편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 깨어 있으십시오! 이 불법한 자들의 역풍과 허세에 함께 휩쓸려 가서 여러분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점점 더 **알아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믿음 안에서 진보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계명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증언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영광이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미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높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날 예수의 나라가 마침내 영원히 환히 빛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 미혹하는 자들
- 미혹
- 하나님의 심판
-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보호
- 서로를 대하는 태도
- 우리의 목표

유다서

몸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을 섬기는 나 유다가 여기에 씁니다. 나는 야고보의 친형제이며 - 주 예수의 친형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씁니다.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친자녀로 사랑받는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의 보물이요 소유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받은 큰 구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쓰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여러분 눈앞에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나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께 받아 우리에게 전해 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 이 믿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간계와 미혹하는 기술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과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허가로 여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 죄 된 욕심을 뒤쫓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과 끝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전승을 통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한 오늘의 상황에 잘 들어맞는 세 가지 사건만 일깨우겠습니다. 이 파렴치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백성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셨고,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천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영원한 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큰 심판의 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명과 천사의 지위를 버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낳았고, 큰 홍수 전에 일부러 세상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몸이 아닌 다른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내신 하늘의 사자들과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그렇게 전합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진 이 도시들은,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영원히 내버려진 채, 잃어버린 바 되어, 홀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저승에 묶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한 불의 심판이 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은 이 모든 죄나 이와 아주 비슷한 죄를 봅니다. 그들은 환상을 통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확증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음행을 확증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을 확증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전혀 없으면서 어둠의 천사 권세들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확증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조차, 강력한 어둠의 천사 권세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룰 때, 악한 의도를 품은 그에게 모독하는 판결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 짐승처럼 본능으로 깨닫고 행하는 것, 바로 그 일에서 그들은 짐승 같은 충동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나침반도, 영적인 통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살인자요 시기하는 자였던 가인이 이미 했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탐욕과 이익을 좇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자기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은 반역한 고라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감히 차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동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비를 예고하지만 비를 가져오지 않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불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늦가을의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앙상하며, 벌써 두 번 죽었습니다. 뿌리째 뽑혔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거품처럼 넘쳐 납니다. 허풍쟁이들입니다.

궤도에서 벗어나 아무 방향도 알려 주지 못하는 떠도는 별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들은 가장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미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 그들 가운데 그분이 서 계신다. 심판을 행하시려는 것이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 때문이다. 그들의 뻔뻔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 때문이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을 거슬러 한 말 때문이다.”

그들은 늘 불평하며 자기 처지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크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굶실거리며 아첨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않게 자기 충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독을 퍼뜨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거짓된 사람들처럼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 앞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할 힘을 기도 가운데 얻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속사람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십니다. 결코 경건한 의무를 채우듯이 기도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변함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인을 부인하는 이 거짓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십시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날에 우리를 만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옮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들 곁에 서 주고,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듯이 구원하십시오. 믿음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누군가를 구해 내듯이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이미 미혹되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말없이 용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죄를 미워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이 미혹받은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얼굴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흠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채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환호입니다. 그때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그분께 속하며 그분께 마땅합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 예수 -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 우리의 위대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경배
- 성소 안에서의 삶
- 새 언약
- 다 이루었다
-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대속죄일
- 믿음
-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들이여,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 깊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전에 없던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 완전한 - 그러므로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자신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구원이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정해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분의 본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하심에서, 하나님 영광의 완전한 광채요 그 영광이 비추어 나온 빛이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 예수의 본질과, 땅에서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의 실재와 임재를 이룹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게, 꺾을 수 있게, 손에 잡히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각조각, 조금씩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분명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오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아들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탕줄로 이어진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을 통해 - 생명과 전능하심이 담긴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꼭 필요했던 그 일을 위해 몸소 싸우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자기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엄 오른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보좌입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천사들은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예수께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받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분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들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으로 그분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나는 이것을 거룩한 책들에서 일곱 군데를 인용하여 증명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뛰어난 지위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메시아 왕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 곧 아들은 시작이 없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으며,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헤아릴 수 없는 성육신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 말씀은 그 예언의 넓이와 깊이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참됩니다. 이 말씀들은 특히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과, 우주의 왕으로 높아지신 일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하늘 보좌에서 다시 눈에 보이는 세계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이미 그랬습니다 -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말입니다.

천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아 내보낸다. 그들은 내가 불꽃으로 삼는 나의

일꾼들이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아들이신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결코 시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으로 아들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굳게 서 있고 모든 것 위에 있으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주의 흠, 곧 주의 통치의 지팡이는 의입니다. 주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께 기쁨과 환호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왕으로 부르셨고, 다른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천사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동료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시편 102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태초에 우주를 지으셨으니, 그것은 주의 능하신 손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없어지겠지만 주는 남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고 썩습니다. 헤어진 외투를 말아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무너지지 않도록 변화되고 갈아입혀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주는 언제나 같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주의 햇수는 끝이 없고, 결코 새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곁, 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확신하라. 네가 네 모든 원수를 발판처럼 네 발아래 둘 날이 온다.”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 곁에 서 주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힘든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여러 번 믿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장

우리는 이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에 정확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배처럼 될 것입니다. 목표를 지나쳐 미끄러져 갈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의 하늘 회의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로운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구원, 곧 **아들**을 통한 구원을 가볍게 지나치거나 위태롭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무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모든 곳에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날까지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으로 이 메시지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일들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믿어진 곳, 또 지금 전해지고 믿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들**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때 땅을 사람의 다스림 아래 두셨습니다 - 천사들의 다스림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올 세상도 그분은 천사들에게 맡기거나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 엘로힘, 곧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곧 메시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 아래 두셨다면, 그분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비길 데 없으며 기쁨 부음 받은 사람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곧 그분이 구속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동료인 우리와 함께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이 우주적인 통치를 그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아직 보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때가 옵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낮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폭력으로 죽음당하는 죽음의 모든 쓴맛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피조물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셨고, 그렇습니다, 영광의 승리의 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 메시아 예수를 땅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섬김을 위해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 예수께서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앞장서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선장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 곧 많은 아들과 딸을 막을 수 없이 승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닫혀 있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땅에서 사람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는 **사람으로서**, 지위로 보아 사람보다 위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의 하늘 회의, 곧

엘로힘의 회의에서 그분은 시편 22편이 말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형제자매에게 전하고, 천사들의 하늘 회의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께 내 신뢰를 두겠다. 이 새 가족을 원하신 하나님께 두겠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셨지만 그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놀라운 결과는 이것입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자매로 주신 자녀들이다.” 메시아께서는 우리 모두, 곧 그분의 크고,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족을 하늘 회의에 소개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음을 선포하며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분, 나사렛 예수께서 완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죽을 존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그분도 그것이 되셨습니다. 죄만은 예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범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사형 판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자인 마귀는 이 판결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죽음으로 우리 죄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결코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 평생 양심의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해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앞장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고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선장이신 분이 마귀를 이기시고 그에게서 권세와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천사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여,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또한 믿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이 민족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서 - 물론 죄는 예외입니다 - 그분의 형제자매와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자비롭고, 함께 아파하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치워 버리셨습니다. 없애 버리시고 끝장내셨습니다. 이것은 - 예수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으로서 -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성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나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과 박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그분 자신이 겪고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어떤 것보다 더 혹독하게 겪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이 그분을 이 대제사장의 섬김에 합당하게 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 곁에 서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일어난 일들을 겪고 견디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이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장

그러므로 거룩한 여러분, 구속받은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사도로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하는 동반자요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 그분의 하늘 성소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이 섬김과 직분에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 모세가 하나님의 옛 백성인 이스라엘,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가 지은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짓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곧 모세와 그의 집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집에서 맡은 섬김에 신실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요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곧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집 **위에** 계십니다. 모세와는 다릅니다. 그는 이 집 **안에서** 일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그분께 속한 집,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가족,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할 수 있는 기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 때에만** 그런 사람입니다 -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삶이 끝날 때까지, 또는 메시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거든,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때에 그러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그들은 40년 동안 나의 신실함과 돌봄을 보았으면서도, 나에게 도전하고 의심하며 나를 떠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에게 노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늘 미혹되었다. 그들은 나의 선한 길을 도무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진노 가운데 맹세하였다. 애굽을 떠난 이 세대는 -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 나의 안식,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누구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십시오. 불신으로 가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과 메시아에게서 떨어져 나갈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알게 되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태롭고 시련 많은 때에 날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 불신으로 미혹되거나 완고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을 버리면 안식을 찾는다고 믿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메시아 예수의 영원한 동료, 참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건히 붙들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참되고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오늘, 그렇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때 거역하던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거슬러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4장

히브리 사람들이여, 그리고 내 편지를 듣고 읽는 모든 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안식에 정말로 이르도록 진지하게 마음을 쏟으시라!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을 통해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영광에 대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듭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창조 사역은 처음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곧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출애굽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은혜의 날 - 새로운 “오늘”을 정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그분은 다윗을 통해 시편 95편에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세대를 마지막 안식으로 들여보냈다면, 그분이 이제 다른 안식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장차 올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곧 안식일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분의 희생 제물과 그분의 통치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안식일의 안식, 이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간 사람은 - 하나님 자신처럼 - 자기 일을 마치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겹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살피십니다. 그분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으며,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몸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날 칼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속까지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태도를

판단하고 드러냅니다. 이 칼은, 비유로 말하자면, 혼과 영을 갈라놓고, 뼈와 골수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알아보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위험을 부수거나 - 아니면 그냥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창조 세계에서 창조주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책임이 있으며, 언젠가 그분께 셈을 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실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 있게 계속 걸어가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 이스라엘처럼 -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방식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지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우리의 피곤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의심과 체념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시련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끔찍한 고통을 거부하고 십자가 없는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죄와 불신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 없이 계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제자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하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펼쳐 놓읍시다. 감사합시다. 경배합시다. 그곳 은혜의 보좌 앞에서 - 믿음과 성령 안에서 - 시간을 보냅시다. 쉼을 얻읍시다 -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찾읍시다. 그분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의 보좌는 우리에게 고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훈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탄원에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꼭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5장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나섭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예물과 희생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가져갑니다. 그 자신은 무지한 사람들과 길을 잃은 사람들, 곧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합니다. 그 자신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의해 대제사장으로 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그 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론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0편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처럼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다.”

그분의 땅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없던 무엇이 그분께 있었습니까? 그분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 드리는 간구와 탄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르짖음과 눈물로 그분의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토록 깊고 무겁게 고난이 그분을 덮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무엇보다 더 경외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분이 영원한 아들이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 아버지와 동등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이런 순종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과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도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목표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과 죽음에서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대적들에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을 빌미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요 이유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여 최종적이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 바로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엄숙하게 맞아들이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분을 맞으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그분이 늘 원하셨던 이 제사장을 이제 마침내 얻으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함께,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도 마침내 얻으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게으르고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메시아를 안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교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맨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 대신 어린 아기처럼 젖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 - 비유로 말해 -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어리고 미숙한 아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은 믿음에서 어른이 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익숙하고, 그래서 선과 악, 그름과 옳음을 분별하는 데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거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지 압니다.

6장

그렇다고 나는 지금 다시 처음부터 - 구구단부터 하듯이 -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옳고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알기 전에 이미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든 풍성함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반대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동족들도 믿는 이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 뒤에 숨어 동족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떤 기초 가르침들은 뒤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할 수 없는 죽은 행위와 쓸모없는 의식에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찢는 예식에 관한 가르침이나 안수, 또는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과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때 빛을 받았고, 메시아를 알았고, 성령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렇습니다, 맛보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이해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차 올 새 세상의 기적들을 보고 함께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 그때처럼 - 메시아를 자기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의 동족들에게 알린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의 삶과 죽은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은혜를 다시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잘 보여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밭은 자주 비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햇빛과 비 덕분에 쓸모 있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냅니다. 그러나 같은 밭이 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저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불태워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 밭과 같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때 맺었을지도 모르는 좋은 열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잡초만 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오해할 수 없도록 엄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불의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과 성도들을 위해 한 일을 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곧 메시아를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그분과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의 섬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 사람이 이런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확신과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시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 모든 것이 그것에 반대되어 보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토록 오래 걸렸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맹세나 서약은 모든 반론을 끝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 바로 여러분입니다 -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맹세로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집을 수 없는 두 가지를 - 곧 그분의 맹세와 약속을 - 통해 우리가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강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곧 우리 메시아께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은 헛된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닻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이 하늘과 이어져 있습니다. **소망의 닻**은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으로서 들어가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지 못합니다. 그를 제사장 직분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해 줄 족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견주어 봅니다. 그는 메시아를 미리 보여 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멜기세덱의 삶은 그 시작도 끝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도 그러하십니다. 멜기세덱처럼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퍼센트까지 선물로 바친 이 왕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도 율법에 따라 그들의 형제들, 곧 동족들에게서 10퍼센트를 받아 생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모두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친척도 아닌데 그에게서 10퍼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 내가 이미 말했듯이 -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높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 십일조를 받는 사람인 - 레위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셈입니다.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조상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죄 사함과 온전함과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길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바꾸신다면, 이 율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으신 예수를 두고 말합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 지파에 대해 모세는 제사장의 섬김과 관계있는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세워진다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사람의 혈통 규정이라는 법에 따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너질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곧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는 - 다른 누구도 아니고 -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처럼 제사장 직분에 관한 해당 모세의 계명은 약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무효로 선언됩니다. 율법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 이 새 제사장을 통해 -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망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결코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자리와 역할에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보장이요 확실함이 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한 제사장의 뒤를 다른 제사장이 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언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더 이상 넘겨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섬김은 결코 끊어지거나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여 목표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을 위해 나서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대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죄 없고, 그렇게 흠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어 이제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전의 모든 대제사장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뒤에야 온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웁니다. 그분은 이 섬김을 위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영광 가운데 받으신 왕관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8장

우리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때 사람들이 세운 성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섬김을 하려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신다면, 그분은 결코 제사장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섬김과 그들의 장막 성소는 하늘의 실재를 본뜬 것입니다. 땅의 예배 의식 전체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이 장막을 세울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 준 그대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라.”

우리 대제사장의 섬김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게다가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훨씬 더 좋은 약속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결코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를 것이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어두운 언약 파기의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 세울 새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완전한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새길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다시 그들이 아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모두, 가장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나를 참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므로, 그분은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아지는 것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영원히 사라집니다.

9장

첫 언약에는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칸에는 일곱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둘째 장막, 곧 둘째 휘장 뒤의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그 바로 앞에는 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온통 금으로 입힌 궤입니다. 그 안에는 광야의 만사를 담은 금 향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쌓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언약의 율법 판들이 있었습니다. 궤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 곧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막 성소가 이렇게 갖추어지고 나뉘어 있으므로, 제사장은 날마다 첫째 칸에 들어가 자기 섬김을 합니다. 둘째 칸에는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갑니다. 일 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께서는, 첫째 칸이 직접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 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려 있지도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섬김이 행해지는 시기는 구원과 용서의 면에서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예물과 제물이 양심의 짐을 덜어 줄 수 없고, 하물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씻는 예식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겉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양심, 깨끗해진 양심, 그렇습니다, 자유로워진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섬김이 온전함을 이룹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 크고,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소를 위해 오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도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 영원한 구속을 이룬 뒤에,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흘리신 피의 능력과 영원히 유효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짐승의 피를 뛰어넘습니다. 그 피는 한없이 더 값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의 성소에 있던 대제사장처럼 성소에서 다시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되풀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들에게 물과 함께 뿌린 암송아지의 재가 길을 거룩하게 한다면 -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참된 거룩함을 이루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 흠이나 나무랄 데 없이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짐승 제물의 피처럼 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피는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죽고 쓸모없는 율법의 행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깨끗해진 양심으로 여러분은 마침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범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제물의 죽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제물의 죽음과 피가 없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 옛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언약의 모든 계명을 읽어 준 뒤에, 제물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함께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 전하는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 지켜야 할 언약의 피다.” 그러나 율법책과 백성에게만 뿌린 것이 아닙니다. 장막 성소와 예배에 쓰는 기구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율법 자신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용서나 깨끗해짐이 없습니다.

하늘 성소를 본뜬 장막이 피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이 세운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나서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서십니다.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드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아래의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피가 아니라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듭거듭 들어갑니다. 이런 제사장과 제사의 규정을 따랐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 번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온전한 제물로서, 죄 문제를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 번 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단 한 번이며 되돌릴 수 없게 해결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워 버리시려고 한 번, 그렇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성소를 한 번 더 떠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 다시 들어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시려는 것입니다.

10장

제사 규정과 장막 성소를 짓는 지침을 담은 율법은 더 큰 것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곧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온 온전한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대속죄일에 거듭 드리는 희생 제물은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온 백성이 용서를 기대하며 장막 성소로 옵니다. 그곳에 용서와 온전함이 있었다면, 제사의 섬김 전체가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과 제사장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도 - 그리고 다른 때에도 - 염소와 황소의 피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물론 해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은 그 제사의식으로 거듭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변함없는 용서의 확신을

가져다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 년 동안의 양심의 평안 정도는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리키시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짐승 제물과 곡식 제물을 사실 한 번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몸을 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옵니다. 그것은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사 규정을 담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뒤에 나오며, 새롭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알립니다.

그분이 “주께서는 모든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아예 원하지 않으셨습니다”(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데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신 아들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옵니다.”

이렇게 그분은 첫 언약과 그 제사의 섬김을 없애시고, 두 번째 언약,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메시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러진 예수의 몸이라는 제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은 모두 날마다 **서서** 자기 섬김을 합니다. 그는 같은 제물을 거듭거듭 드리지만, 그 제물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제물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되풀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그분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 믿는 우리를 -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목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신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우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옛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로 증언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이 언약을 세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용서받았다. 내가 그것을 다시는 너희에게 들추거나 너희 탓으로 돌리지 않으리라.” 그러니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용서가 선언되고 선물로 주어졌다면, 죄를 위한 또 다른 제물은 결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써 제사의 섬김 전체가 쓸데없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큰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일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한 확신이 있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갑니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살아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끕니다. 이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우리는 늘 걸어 나아가도 됩니다. 그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열어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져야 했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에서 아직 찢어지지 않은 휘장과 같으셨습니다. 그분의 제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비로소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써 옛 제사장과 제사 의식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의** 큰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겪는 모든 약함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로,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은 그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양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맑은 물로도 우리는 - 물론 비유적인 뜻에서 - 죄의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이토록 풍성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소망을 고백하고 굳게 붙드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소망은 메시아 자신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젠가 참으로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선물로 주신 분만큼 신실한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를 살핍시다. 감시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힘을 북돋우려고 그렇게 합시다. 사랑과 감사로 선을 행하도록 북돋웁시다. 우리 이웃을 격려하도록 북돋웁시다. 거둬 함께 모여 사귀를 나누고, 기도하고, 경배합시다. 아무것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그만두었고, 지쳐서 믿음과 소망마저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로 사귀와 소망 가운데 머물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의 큰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가까이 옵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믿음과 소망을 버리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때 예수의 제물을 알았다가 다시 그것을 내버린다면 -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다른 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제물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옛 제사 제도는 그의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원수들에게 닥칠,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불을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버린 사람도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 마치 그분이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 발로

깃발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그에게 이 은혜를 가져다주고 그것에 대해 그를 깨우쳐 준 영을, 이제 마치 그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인 것처럼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말한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과 보응은 내게 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에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지닌 채, 메시아와 그분의 제물을 내버린 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도 살아 계신 분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 왔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오래전에 여러분이 은혜의 영을 통해 빛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남다르게 많은 싸움과 고난을 겪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장 하찮은 쓰레기처럼 악한 말로 모욕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직접 닥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곁에 신실하게 섰습니다. 믿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쁘게 견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남는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확신과 신뢰와 소망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메시아 편에 서십시오!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기도 하십시오! 그 길에 머무십시오 -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아주 잠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 믿음을 내던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믿음의 목표를 버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11장

믿음이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믿음은 굳은 확신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을 미리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미래의 일이 이미 사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저는 우리 조상들, 곧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격려가 되는 본보기들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들 안에서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황이 몹시 어려워졌을 때에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에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형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자란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아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오늘날까지 삶과 죽음이 걸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대신할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으로 그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산

많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실하게, 끈기 있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큰 배, 곧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가까이엔 바다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대담하게 상상해도 그 일을 그려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동시에 그는 순종하며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불경건함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게 될 곳을 향해.

믿음으로 그는 유업으로 약속받은 땅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나그네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받은 바로 그 약속을 함께 이어받은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유목민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굳고 영원한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을.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너무 늙었는데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언제나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럼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 족장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유업에 대한 약속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유업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유목 생활은 그들이 시민권도 없는 그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고향, 아니 더 나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이 떠난 고향이 아닙니다.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나그네로서 그들은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위를. 그들은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세 족장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께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의 고향에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집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외아들 이삭, 곧 약속을 이어 갈 아들을 바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자손이 보장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일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게 하셨지만, 그것은 마치 그가 바치는 일을 이미 다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처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셉은 임종 자리에서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넘게 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른이 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남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아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편으로 옮겨 섰습니다. 그들의 치욕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죄의 즐거움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앞을, 곧 가나안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의 분노와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굳건히 견뎌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황량한 땅에서 40년을 보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모든 말아들이 죽음의 천사에게서 보호받도록.

믿음으로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걷듯이. 그들을 뒤쫓던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믿음이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물결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이레 동안 성을 돌며 행진한 뒤였습니다.

그 성의 성벽 안에 살던 창녀 라합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라들을 이겼는지. 의를 널리 펴고 행했는지. 약속을 받았는지. 사자들을 이겼는지. 불을 켜는지. 칼의 추격을 피했는지. 그리고 완전히 약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었는지. 싸움과 전쟁에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공격해 오는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부활을 통해 죽은 가족을 다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더 나은 부활,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족을 걸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몹시 궁핍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속을 헤매었습니다. 동굴과 땅굴에 숨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 믿음으로 증언을 받은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상속받고 함께 속하도록.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함께 그때 약속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12장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순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세상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으십시오. 계속 달려갑시다. 방해가 되는 것을 던져 버리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느리게 만드는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탄 데 정신 팔게 하는 것과 유혹을 무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토록 쉽게 엎어매고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사람의 맨 앞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달리셨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일으키셨고, 우리를 목표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에도 흔들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큰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많은 아들과 딸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분께 퍼부은 그 큰 반박과 반대를 참아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분은 목표에 이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본보기라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처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고 반대를 견뎌 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죄에 맞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들과 딸인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께서 너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 그것을 복으로 반겨라. 주님께서 때로 너를 엄하게 다루셔야 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꾸지람도 훈육도 전혀 겪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결코 아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육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분의 훈육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섬기는 모든 천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기르시는 일이 중요하며, 그분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그 일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에 마음으로부터 “예” 하고 대답합시다. 때로 힘들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인간적이고 실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우리를 훈육하고 벌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실수 없이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뒤에도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점점 더 닮아 가도록. 그분의 유일무이한 신적 성품과 그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징계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결코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런 훈육은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막을 수 없이 자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훈육에서 달아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그분의 손에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인내를 연습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을 일으키고 떨리는 무릎을 세우며 곧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겁먹은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고,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뭉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서로 화평하기 위해 단호하게 힘쓰십시오. 또 거룩함을 위해서도 힘쓰십시오.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큰 날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며 자기의 구원과 생명을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에 달린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서로 살피십시오. 또는 율법, 곧 옛 언약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쓴 뿌리, 곧 악의의 독한 뿌리가 돌아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자라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그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음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조차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기가 얼마나 경솔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써 몸부림쳤는데도, 그는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 못했고 참된 마음의 변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바르게 평가하십시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옛 언약에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그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 시내 산에서:

- 만질 수 없었던 산.
- 그 위에 불이 타오르던 산.

- 큰 구름이 덮여 있던 산.
- 어둠과 캄캄함이 감싸고 있던 산.
- 그 주위로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던 산.
- 그곳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리던 산.
- 그리고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던 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금송아지 죄 이후 시내 산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은 너무도 두려워서, 모세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노가 두려워 떨고 있다.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압도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완전히 새로운 것, 넓은 지평이 열렸습니다. 영적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실재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실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내 산에 나아왔습니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 수만의 하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고 즐겁고 엄숙하게 모인 축제의 자리에.
-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속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장자들의 모임에.
-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께.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합니다.
- 죽어서 이미 하늘의 목표에 이른 의인들에게.
- 메시아이신 예수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분께.
- 그리고 그분의 피에. 이 피는 보복을 외쳤던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때 시내 산과 광야에서 땅으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한다면, 우리는 더욱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 음성은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이 진동을 통해 지음받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진동을 견디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남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과 공경으로.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삼가는 마음으로. 이미 신명기 4:24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제물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13장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손님 대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서로를 너그럽게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천사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서든 우리를 섬기며 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천사들의 방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간헐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학대를 당하며 그것을 자기 몸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혼인 언약과 결혼 생활은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부부의 침소와 성의 기쁨은 오직 부부에게만 속합니다. 그것이 혼인 언약을 튼튼하게 합니다.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자기 혼인 언약을 깨뜨리거나, 혼인 언약 없이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십시오.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라질 것을 점점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궁핍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함없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굳세게 말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과 신실함을 보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물렀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제, 곧 이 땅에 계시던 때에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영원히, 곧 구원 역사의 목표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휩쓸리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옛 언약의 본질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더 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제단에서 먹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를 먹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 짐승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첫 언약의 옛 체제를 완전히 뒤로하고 떠납시다. 그것이 치욕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앞을, 아니 뒤를 바라봅시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집처럼 머물 영원한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장차 올 성으로 가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위대한 왕의 성이 벌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서도, 함께도. 눈에 보이는 제단 위의 짐승 제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로 하고 노래로 부르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물질의 제사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재정적으로 돕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제사, 곧 시간과 돈과 힘이 들고 어쩌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굳건하게 머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숨을 쉬며 또는 그저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다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새롭고 더 나은, 아니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친히 죽음에서 이끌어 내어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가시고, 생명의 샘 곁에서 그들을 먹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이끌어 내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움직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갖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습니다. 제 편지에 담긴 권면을 너그러이 받아 주십시오! 저는 몇 마디 말로 짧게 적었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곧 여러분에게 가서 마침내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지도자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냥 다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

Apocalypse Now! 이것은 80년대에 나온,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몹시 어두운 반전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제 차례가 된 성경책의 이름도 “아포칼립스”입니다. 이 책도 어두운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화와는 달리 이 책에는 많은 빛과 소망이 있고, 역사의 끝에는 선이 승리합니다. 아포칼립스는 “종말이나 세상 멸망의 시나리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덮개를 벗김,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과 고난을 이기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세계와 함께 엮어 가시는 역사는 새 땅 위의 새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새 세계로, 새 창조로 떠나는 것이 그 절정입니다. 하나의 점이 결코 끝나지 않는 선이 됩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요한이 아주 늙은 나이에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뒤로 극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요한은 엄청난 상상력과 압도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세계를 보고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머릿속 극장에서 이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의 초대하다시피 합니다. 이 책은 대개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자기 성경을 펴 놓고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 앞에는 상징과 표징과 초현실적인 그림들로 가득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흔히 당혹스럽고, 기괴하고, 극적이며, 심지어 잔인하고 과장되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름답고, 압도적이며, 위로가 되고, 약속으로 가득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이런 문학 양식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쓰기 양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오늘날의 것과 비교하자면, “쥬라기 공원”과 “반지의 제왕”과 “스타워즈”를 섞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그것도 여러 번. 미래 속으로. 자, 안전띠를 매십시오!

묵시 문학은 삶과 죽음이 걸린 믿음의 위기를 다룹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악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토록 상상도 못 한 규모에 이르는 것입니까? 묵시 문학은 그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분의 백성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용감하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뜻밖의 방식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은 패배하고 그분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큰 그림, 곧 전체를 붙잡으려고 해 보십시오. 본문의 세부와 미묘한 부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그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한두 걸음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눈앞에 두십시오. 그것은 세부가 중요하지 않은 인상주의 그림과 같습니다. 화가가 표현하려는 전체 인상이 중요합니다. 묵시 문학은 작은 세부가 아니라 그림 전체의 메시지에 무게를 둡니다. 세부는 때로 전체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역할만 합니다. 전체를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 여러분은 여러 번 놀라움과 경외감에, 아니 경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묵시적 환상 안에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예언하는 것, 넌지시 가리키거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문자 그대로의 것,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4장 이후의 모든 것조차도, 반드시 미래를 예언하는 의미의 예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미래의 일로 해석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책은 거의 2000년 전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 해도,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묵시 문학은 미래에 대한 현장 보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일어날 일들도 다룹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도 다룹니다. 그러나 이 책이 미래의 시간표가 되려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게 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모두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사건들의 서로 다른 측면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세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정 구술이 아닙니다.** 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신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적 실재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도 상징과 비유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이 전쟁과 폭력의 언어로 묘사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전사로 오셔서 원수들을 문자 그대로 멸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해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승리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 듣습니다. 그 사자를 보려고 했을 때 그는 사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양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한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상처를 지닌 어린양을. 이것을 이 책의 열쇠가 되는 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문자 그대로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린양은 폭력도 강제도 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폭력 없이 이기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싸움은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와 신실함으로 이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저항은 예수의 본을 따릅니다. **폭력 없이.** 목숨을 잃을 각오로. 그것이 그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언어는 언제나 그림 언어입니다. 주된 싸움꾼들은 문자 그대로의 어린양이나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짓과 진리, 신실함과 미혹 사이의 영적 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전쟁 못지않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참된 “구세군”입니다.

이 전쟁의 언어와 그림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복음서의 예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십자가 위의 예수, 곧 희생된 어린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으면 그분이 폭력을 쓰는 전사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그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같은 분이시며** 언제까지나 그러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묘사할지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증언이지,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복수하는 사나운 전사를 묘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신들과 신화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칼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베드로가 칼로 예수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모두를 잠잠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끝을 위해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을 집행하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적대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그 밖에도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 대해 끝까지 악하게 구는 곳에서, 그분은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고 마지막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묵시 문학이 무엇을 말하려 하고 무엇을 말하려 하지 않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 이야기들과 우리 시대가 시작될 무렵의 세계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꽤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거의 모든 것은 히브리 성경, 곧 구약에 대응하는 것이 있거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실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 책은 성취, 곧 세상의 완성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서구적인 논리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한 유대인이 히브리적 사고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자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글을 씁니다. 해석은 흔히 구약의 빛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설명을 곁들인 이 옮김에서 여기저기에 더 따라가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겨 두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살던 세계도 비추어 봅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암시와 그림으로 자기 시대의 우상 숭배와 생활 방식을 **비판합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도시들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처지는 위협받고 있으며 승리의 영광과는 거리가 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예수를 세상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며, 미혹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희생된 어린양에 대한 확신이 붉은 실처럼 책 전체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예수를 위한 죽음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완성 때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의 몰락도 이와 비슷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본보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힘과 폭력으로가 아니라,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폭력을 쓰지 않으심으로. 오직 그렇게 해서 새 창조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합니다. 참된 **위로의 책**입니다. 가장 강렬한 격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 머물라는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이 그 반대로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믿음과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힘으로 굳어진 마음에도 다가가려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려는 폭풍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어떻게 경배받으시는지가 자주 묘사됩니다. **그 경배에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이 책은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곧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묵시록이 그냥 우리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극적인 그림들의 도움을 받아. 그 감정이 담긴 언어를 정말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을 이미 그의 복음서, 곧 예수와 삶과 말씀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잊지 마십시오. 이 책도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을 값없이 받으라는, 그 어떤 것보다 마지막이며 가장 강렬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라는, 귀를 막을 수 없는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묵시 문학은 어떤 곳에서는 신비로운 채로 **남습니다**. 질문들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책을 읽으십시오. 거듭거듭!

요한계시록

- 어린양, 유다 지파의 사자 - 그리고 용
- 행복하게 하는 책
- 누가 경배받기에 합당한가?
- 누가 세상의 왕인가?
- 다시 오시는 주님
- 교회를 위한 소망
- 어린양의 승리
- 어린양을 따르는 순교자들과 이기는 자들
- 왕의 귀환
- 공동체를 위한 위로
- 만물의 목표
- 계시란 덮개를 벗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스입니다. 덮개를 벗기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한, 그리고 역사의 목표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인자이신 그분께 주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종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그 일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한 천사가 보내졌습니다. 잘 알려진 예수의 제자이며 종인 요한에게, 극적인 표징들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의 2000년 전에 듣고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누군가 낭독할 때 듣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요한이 글로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물처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올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로마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보내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빕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계시고, 언제나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로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 여러분을 위해 거기 계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이 일곱 영은 성령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분의 백성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순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은 죽기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만아들로서, 새로운 부활의 세계, 곧 하늘과 땅의 새 창조에서 첫째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부활할 모든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서, 그분은 땅의 모든 왕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려던 자들이 이제 그분께 굴복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언제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게, 우리 편에 계시는 분! 우리를 받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 우리의 고집을 용서하시고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족의 혈통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 낙원에서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의 때가 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롭고 더 좋은 낙원이!

사랑으로 온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주님, 만왕의 왕께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 온 민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찢은 자들조차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경악과 공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책과 무관심과 경멸을 안은 채,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날은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영원히 계시는 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다. 모든 것을 살아 있게 붙드시는 분, 엘 샤다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 목표에 이르는 분.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처럼 저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그분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저는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제 뜻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참된 통치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유배당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인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거뜰거뜰 다른 하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큰일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뒤에서 크고 힘찬 음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네가 지금 보는 것과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것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저는 그 음성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누가 그토록 강하게 제게 말하는지 보려고. 그때 저는 먼저 일곱 금 촛대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촛대 한가운데에서 제게 말씀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천사일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일까? 그분은 예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던 친근하고 가까운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발까지 내려오는, 법복 같은 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께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인자께서 제사장처럼 촛대들을 살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제사장의 위엄으로. 또한 왕의 영예로. 그리고 심판자의 권위로.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눈처럼.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 선지자 다니엘이 보고 겪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에 그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될 터였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냈습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환히 비추었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으로.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구리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굳건함과 힘은 큼니다. 이 땅에서 사신 삶에서 시험받고 입증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렁찼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큰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매수할 수 없는 심판자이십니다. 완전한 정의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빛나는 해 같았습니다. 눈이 멀지 않고서는 쳐다볼 수 없는 해 같았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그 옛날 다니엘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제 안의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압도당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그분의 **오른손**을 제게 얹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처럼.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모든 시간 이전에 있었고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이다. 부활한 인자다. 나는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 있다. 영원히. 세세토록. 나는 죽음을 뚫고 나와 이겼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음의 권세들은 물러갈 것이다. 두려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을 기록하라.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베들레헴에 내가 온 때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까지.

그분은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일곱 별은 천사들입니다.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것은 제게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놀랍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소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그 교회들은 천사들을 통해 이미 하늘에, 곧 그들의 본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그들은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인자이신 그분의 것입니다.

2장

이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퀴리오스(Kyrios)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세계의 교회에게 중요한 소식을 담은 편지를 쓰라고 제게 맡기셨습니다. 일곱 교회를 소유하신 분에게서 온 소식입니다. 그 교회들을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드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분에게서 온 소식입니다. 그분의 소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를 아주 자세히 압니다. 그대의 선한 행위와 이웃 사랑도 압니다. 그대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모든 섬김 가운데 그대가 참고 견디는 모습도 본받을 만합니다.

또 그대가 그대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그대는 시험하여 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버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의 첫사랑**입니다. 그대의 처음 사랑, 곧 내가 처음으로 그대를 만나 그대의 마음을 얻었을 때의 사랑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그리고 그대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그대의 사랑은 뜨겁고 싱싱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대가 한 모든 일의 이유이며 동기였습니다.

그대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처음에 하던 일을 하십시오. 참된 사랑에서.

그대가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대의 촛대를 옮겨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예베소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빛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부도덕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는 자들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 상태를 이기고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나는 큰 상을 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새롭고 더 좋은 에덴에. 새 예루살렘에.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로 창조한 새 세계에. 그곳에서 그는 끊임없이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이 도시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예수의 명을 받아 편지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마지막에 승리하여 서 계실 분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는 그대의 사랑의 행위와 그대가 나를 위해 견디는 박해와 고난을 정확히 압니다. 그대의 가난도 압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대는 내 안에서 부요합니다. 장차 올 세계가 그대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비방과 중상도 압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특히 여러분 가운데 나를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 때문에 그대가 앞으로 견뎌야 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곧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추겨 여러분을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받고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열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기간이며,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기간입니다. 사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황제나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대가로 목숨과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생명의 승리의 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그대는 계속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영광 가운데서. 내 곁에서.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며, 나는 같은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끊어진 영원한 죽음입니다. 불못에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거부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편지합니다. 날카롭고 꿰뚫는 양날 검을 가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의 모든 선한 사랑의 행위를 압니다. 나는 그대가 어디에서 살고 지내는지 정확히 압니다.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며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사로잡아 두는 곳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대는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도시에 있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신전들 앞에서도, 그대는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자리 잡고 살면서 사람들을 부추겨 여러분을 대적하게 하는 그곳에서.

그러나 그대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그 옛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미혹으로. 곧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와 함께 성적인 방탕에 빠지게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에는 니콜라 당의 가르침을 붙드는 자들도 몇 있습니다. 그들도 성적인 방종을 좋게 여깁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이런 가르침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뉘우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반쯤만 한다면,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맹렬한 검을

가지고. 나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되게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발람을 따르는 자들과 니콜라 당을 이기고, 우상의 잔치와 성적인 방탕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아니라, 참된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흰 돌을 줄 것입니다. 만나처럼 흰 돌입니다. 깨끗한 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새 이름을 써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무죄 선고이며, 이미 시작된 새 시대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친구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분이 편지합니다. 그 눈은 불꽃처럼 빛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어떤 악도 참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 빛나는 구리 같으신 분입니다. 거룩함과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지니신 분입니다.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대의 참된 사랑과 그대의 신실한 섬김을. 그리고 그대가 참고 견디는 것을. 그대가 지금 나를 위해 힘쓰는 일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더 열심입니다. 나는 그대가 성장해 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대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세벨, 곧 아합의 아내 같은 한 여자를 용납하고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녀는 자기를 여선지자라 부르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는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전 잔치에 함께하게 합니다. 거기에 성적인 방탕이 더해집니다. 음행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이. 그런데도 여러분은 막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미혹과 음행을 그치도록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심판하여 그녀의 음란한 침상을 병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곧 나는 그녀를 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녀와 함께 놀아나는, 미혹되고 길을 잃은 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 이세벨의 행위를 그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큰 환난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녀에게 매여 그녀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그녀의 영적 자녀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죽을병으로 죽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마음과 뜻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다 보는 이라는 것을. 나의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고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여러분은 **가진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저 자들이 뱉내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들의 이른바 특별한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처럼 이 거짓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올 때까지 나와 내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세벨과 그녀의 행위를 이기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며, 목자처럼 돌봄과 사랑으로 그들을 먹일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도 이 권능과 권세를 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새벽 별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이며 빛나는 새벽 별인 나와 함께 빛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히. 머지않아 날이 밝아 올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과 나의 말씀으로 온 땅의 모든 교회에 말합니다!

3장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도 이 일곱 영에 대해 말합니다. 그분은 동시에 일곱 별, 곧 교회들의 일곱 천사를,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교회를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그대의 행위와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을 압니다. 나는 그대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그대는 살아 있고 활발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대에게는 나와와 살아 있고 의식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고요함과 평안과 안락함을 무덤의 고요함과 영적 죽음의 고요함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십시오.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굳세게 하십시오. 나는 그대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대가 처음으로 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말, 곧 나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의 말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깨어나지 않고, 그대의 사람들을 굳세게 하지 않고, 나의 말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대에게 가겠습니다. 복을 가지고가 아니라 도둑처럼. 재앙이 언제 닥칠지 그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몇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위의 이방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때에 희고 깨끗한 옷을 받을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들은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거닐고 다닐 것입니다. 새 땅 위에서.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데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나의 귀빈이 될 것입니다.

사데에서 - 이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 영적 죽음을 이기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말로 돌아오는 사람은 나에게서 흰 옷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 곧 나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기록된 명부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말씀으로 온 땅의 모든 교회에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교회, 곧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저는 편지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곧 문을 열거나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막거나 되돌릴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나는 그대의 행위도 아주 정확히 알고 살핍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대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 수 있게 합니다. 그대에게는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작은 시작과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빌라델비아 성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용감하게 시인했습니다. 반대와 조롱과 적대를 받으면서도.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는 바로 나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나는 그 때문에 험담과 중상으로 그대를 공격하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유대인으로서 행하고 믿어야 할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러분 앞에,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들의 동족 앞에 앞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이며 메시아인 나를 거부하는 저 자들이 아니라.

그대는 나를 참고 기다리라는 나의 말을 지키고 전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큰 미혹의 때에 그대를 지켜 줄 것입니다. 그 미혹은 곧 온 세상을 휩쓸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것입니다.

언제나 거듭 눈앞에 두십시오. 내가 속히 갑니다. 그렇습니다, 뜻밖에! 그러므로 그대가 가진 것을 반드시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의 승리의 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을 나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는 기둥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내 이름을 시인한 것이 영원히 그의 영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그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나의 피로 그를 사서 값을 치른 나에게도 그는 속할 것입니다. 새 세계 질서의 창조자이며 부활한 나에게.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말씀으로 온 땅의 모든 교회에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교회에게, 곧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저는 편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나의 고백과 헌신을 나의 피로 치렀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분,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모두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신 창조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교회처럼 나는 그대도 압니다. 나는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내가 그대에게 곧바로, 직접,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대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아, 그대가 차가운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한 모금처럼 상쾌하게. 아니면 뜨거운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 주는 목욕물이나 뜨거운 차처럼. 그러나 그대는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차거나 뜨거운 줄 알고 마셨는데 이런 정체 모를 것을 마시게 되면 뱀어 버립니다. 내가 그대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대는 개성 없는 어정쩡함입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불타오른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정면으로 맞선다면, 지금보다 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그대가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이고 부유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도 필요 없다. 은혜도, 우리 교회 밖의 믿음의 형제자매도. 그러나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대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대는 거지와 같습니다. 가난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고, 겼옷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만 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금을 사십시오. 불로 정련한 순금을. 오직 그렇게 해야 그대는 참으로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더 이상 벌거벗지 않게 하고, 그대의 비참한 상태가 가려지게 하십시오. 눈에 바를 안약도 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마침내 무엇이 참인지, 그리고 그대가 내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책망합니다. 나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의 죄를 그들 눈앞에 보여 줍니다. 나는 그들을 훈육합니다. 그것은 아플 수 있지만,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대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을 내십시오. 뉘우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대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먹고, 살아 있고 실제적인 사귀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문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나에게로 오는 사람, 자기에게 그토록 절실히 부족한 것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나의 통치의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기고 죽기까지 신신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그분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말씀으로 온 땅의 모든 교회에 말합니다!

4장

일곱 촛대 한가운데 계신 위엄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곱 편지를 쓴 뒤에, 저는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처럼 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이미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제게 올라와 그 문을 지나 하늘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미 본 것 다음에 이어서 일어날 일과 보게 될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 뒤로도 하늘에서 네 번 더 무언가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 **다섯 개의 환상**이 서로 다른 그림으로 제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들은 모두 메시아의 귀환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환상들은 언제나 차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나란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묘사했다는 것을.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큰 목표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저를 문을 지나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가 있는 방에서. 그러나 그 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쪽으로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에서 저는 거대한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눈과 같은 자리. 만물의 진원지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 위엄 있는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저를 크게 안심시켰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

그곳에 앉으신 분은 벽옥이나 홍보석 같은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그 보석들은 아름다운 붉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좌 위에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무지개 같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녹색 보석인 녹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저 감탄스러웠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다른 보좌들이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작았습니다. 저는 스물넷을 세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승리의 관 같은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교회들을 대표하듯이, 저는 장로들에게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과 열두 사도를 합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온통 흰 옷을 입었고,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관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처럼.

가운데 있는 보좌에서 번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천둥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보좌에서부터 땅을 포함한 온 우주가 불들리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 영들, 곧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환히 비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십니다.

보좌 앞의 공간은 제게 큰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납게 몰아치는 물결이 아니라 단단한 유리로 된 바다였습니다. 수정처럼 빛났습니다. 그 바다는 모든 권세와 자연의 힘보다 강합니다. 쉽 없고 하나님 없는 민족들의 바다도 이 보좌 앞에서는 얼음처럼 굳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발아래 깔린 청옥

판처럼.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 산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좌 곁에, 아니 보좌 한가운데에, 그리고 보좌 둘레에 저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비길 데 없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토록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눈이 있었습니다. 앞과 뒤에.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도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우주를 하나로 붙들고 있는 힘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생물들을 하나의 순서대로 보았습니다. 서열을 뜻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피조 세계** 사이의 생명의 연결을. 그분이 피조 세계 안의 모든 것과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시고 또 보기 원하시는지를.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를.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창조주이시며 힘 있게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습니다. 그 사납고 왕다운 짐승 같았습니다.

둘째 생물은 어린 수소 같았습니다. 힘센 짐승입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특별한 역할 안에 있는 사람을 제게 보여 주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빠르고, 고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은 모두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며 쉬지 않고 말하는 이 생물들은 지치지 않고 거듭거듭 이 몇 마디, 그러나 유일하게 합당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판토크라토르, 엘 샤다이! 영원히 계시는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비해 얼마나 **한없이** 높으시고, 한없이 다르시며, 얼마나 뛰어나신지요!

네 생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경배하며 존귀와 감사와 위엄과 영광을 외칠 때마다, 스물네 장로는 자기들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다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뜻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의 결과라니, 얼마나 큰 존엄입니까! 그분의 창조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니.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5장

그때 저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신적인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 양면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면으로는 모자랄 만큼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밀랍으로 된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일곱 개나. 하나님께서 친히 봉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아심과 역사를 이끄심을 담은 문서 같았습니다.

그때 힘센 큰 천사가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들을 수 있는, 천둥 같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일곱 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며 그럴 자격이 있는가? 거기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죽은 자들의 세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 인을 떼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머문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나 해방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고난은 남을 것입니다. 새 땅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살아남기 위한 비참한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승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스물네 장로 가운데 하나가 제게 와서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 순간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분이 이기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다운 **사자**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저는 안도하며 눈을 들어, 그 힘센 사자, 그 승리자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어린양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을. 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을. 목에 죽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어린양이었습니다. 그 사자는 힘과 폭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린양**처럼! 통치자들과 황제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기 쉬운 작은 어린양을 통해 이기십니다. 폭력 없이. 사자와는 다르게. 그분의 죽음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역사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모든 약속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모든 적대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사자의 마음을 지닌 그 어린양이 이제 보좌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스물네 장로 안쪽에. 그분은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의 상처를 지닌 이 작은 어린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과 하나가 되셨고, 그렇게 해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폭력과 힘과 강제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 주심으로써 그분은 역사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릅니다. 제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목표에.

그 어린양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어린양과도 달리 뿔이 둘이 아니라 일곱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입니다. 작은 어린양이었지만, 그분께는 모든 권능과 권세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곱 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온 땅에 보내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동시에 그 영들은 사람들을 비추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어린양이 이제 보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것을 어린양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위한 한순간이었습니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기이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한 어린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의 손에 세상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손은 없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물네 장로가 앞서처럼 엎드렸습니다. 네 생물조차 몸을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양께 경배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스물네 장로는 하늘의 성전에서처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경배와 간구와 탄식까지도. 그들은 하프도 들고 있었고, 그것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새 노래여야 했습니다!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양께 노래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고, 거기 기록된 것을 읽고 이루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지파와 모든 언어와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 모두를, **온 땅**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보좌 둘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토록 큰 무리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바다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린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함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도 웅장해서 제가 보고 듣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합당하십니다!

모든 권능과 부와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온 우주가 그 찬양에 함께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신 어린양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마땅합니다. 영원무궁토록.

그러자 네 생물이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물네 장로가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이제 어린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 때마다 천둥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함께했습니다. 보좌 곁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외쳤습니다. 이리 와서 똑똑히 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인**을 떼 때 저는 흰 말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활을 가진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탄 자에게 승리의 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천사 같은 존재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려고 달려 나갔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자처럼. 그것은 선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짓밟힙니다.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의 평화도 언젠가는

무너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께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둘째 생물도 첫째 생물처럼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똑똑히 보라!

이번에도 저는 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불처럼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자는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평화를 빼앗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죽일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전쟁과 내전 속에서. 그 말 탄 자는 큰 칼을 받았고, 그것으로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자도 선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서는 이 악하고 파괴적인 악의 세력을 더 이상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악의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명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퍼져 나가는 악을 스스로 행합니다.

어린양께서 **셋째 인**을 떼셨을 때, 셋째 생물도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똑똑히 보라!

그때 저는 검은 말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탄 자는 밀과 보리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열두 시간 일하는 품꾼의 하루 품삯으로 밀 하루치. 그리고 하루 품삯으로 보리 사흘치.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기본 식량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값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덜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는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가뭄이 수확을 망치고 굶주림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치 속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구속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신 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넷째 인을 떼 때 넷째 생물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똑똑히 보라!

이번에도 저는 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잿빛처럼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데스, 곧 음부가 그를 따랐습니다.

음부는 모든 죽은 자, 곧 죽임을 당한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저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큰 심판의 날까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이며 파괴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사나운 맹수들로.

이 모든 말 탄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보여 주시며, 사람들이 그분께 귀 기울이도록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도.

어린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저는 번제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제단 아래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양처럼 그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 어린양 곁에,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보좌 앞에서 함께 큰 소리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절대 주권자여, 우리의 무죄한 피에 대해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죽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 불의가 끝나도록.”

그러자 먼저 그들 모두에게 흰 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이겼습니다. 어린양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걸어온 힘든 삶의 길에서 벗어나 잠시 쉬라고. 땅 위에 있는 그들의 고난의 동료들도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쉼을 할 날이 옵니다. 이 많은 순교자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악은 더 이상 오래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인**이 왔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끝이었습니다. 세계 심판입니다. 쉼을 할 날입니다. 아주 큰 지진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해는 더 이상 빛나지 않고 검게 되었습니다. 달은 피처럼 붉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세차게 흔들릴 때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처럼.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갔습니다. 모든 산과 섬이 이 혼돈 속에서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끝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우주적인 세상 멸망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왕과 높은 자들과 부자들, 장군들과 힘센 자들,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산의 동굴과 바위틈에 숨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적 차이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기들 위에 무너져 내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자기들을 숨기고 지켜 달라고. 온 땅의 심판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살아 계시며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어린양의 진노에서. 진노하시는 어린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께 세상의 통치와 심판이 맡겨졌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성전에서 그분이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분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공의로 대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 대한 그분의 진노의 심판의 큰 날이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며 자기들이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린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어서 보게 될 터였습니다. 정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장

그 뒤에 저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도, 나무들 위에도, 바다 위에도 바람이 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천사, 다섯째 천사가 해 돋는 곳,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는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인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네 천사에게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폭풍을 풀어 놓을 때, 땅도 나무도 바다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의 이마에 이 인을 쳐서 눈에 보이게 표시할 때까지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고, 목표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의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다루는 이 천사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들을 해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심판 때에 그분은 그분의 보호를 거두시고, 오직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만 지키십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인을 칠 사람이 몇 명인지 들었습니다. 144,000명.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였습니다. 지금 들은 것과 같은 그런 순서는 제가 전에 들어 보거나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에서 12,000명. 갓에서 12,000명. 아셀에서 12,000명. 납달리에서 12,000명. 므낫세에서 12,000명. 시므온에서 12,000명. 레위에서 12,000명. 잇사갈에서 12,000명. 스불론에서 12,000명. 요셉에서 12,000명. 베냐민에서 12,000명.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멸시받고 박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였습니다. 제가 이미 썼듯이, 사탄의 회당에게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맨 먼저 전해진 그들이 교회의 핵심이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다른 모든 유대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열두 지파라는 상징적인 온전한 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민족들의 큰 추수가 다 거두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의 동족들, 그들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기를 저는 얼마나 바라는지요.

그 뒤에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대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 있는 커다란 사람의 바다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민족들의 크고 국제적인 추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수의 고난에 대해 미리 말한 대로, 그분의 영혼이 수고한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들고 흔들며, 어린양의 승리와 새롭고 **최종적인 출애굽**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웅장한 환호의 합창으로 이 말을 외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덕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셀 수 없는 모든 천사가 보좌 둘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장 같았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에게 구속받은 국제적인 큰 무리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외친 것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경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시대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때 앞서처럼 스물네 장로 가운데 하나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몰랐고,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용서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 그분의 얼굴 앞에 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영원히.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하늘 성전에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들 둘레에 그분의 처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도, 생존에 대한 불안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짝 태우는 뜨거운 햇볕도 결코 그들에게 내리찍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목자**처럼 지키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살아 있고 솟아나는 **샘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장로가 이것을 제게 알려 주었을 때, 저는 그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양의 추수가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클 것입니까? 저는 오순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큼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저도 겪고 있던 환난에서 나왔고,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양과 그들의 하나님 바로 곁에.

이제 저는 누가 어린양의 진노 앞에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설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 수 없는지도.

8장

이제 어린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로써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반 시간 동안의 침묵과 멈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 가운데 나타나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올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일곱째 인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환상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이 이어졌고, 저는 **일곱 천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팔**이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 바로 곁에 섰습니다.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향을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아니 셀 수 없는 기도에 더하여, 그 기도들이 향기로운 연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께 이른다는 것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조금 그의 향로에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순교자들의 기도에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여기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또 다른 심판들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번쩍이는 크고 눈부신 번개가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무의 삼분의 일과 모든 푸른 풀이 타 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 생물의 삼분의 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강들과 물 근원의 삼분의 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썩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이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어두워져서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었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것이 제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 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들입니다.

그때 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며 마치 함께 아파하듯 크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앞으로 세 가지 나팔 심판을 더 겪을 것이다! 그 심판들은 앞의 넷보다 더 끔찍할 것이었습니다.

9장

그 뒤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저갱, 곧 아비소스(Abyssus)로 들어가는 갯도의 열쇠를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자, 짙고 검은 연기가 갯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 같았습니다. 온 공기와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연기 속에는 메뚜기들이 숨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들에게는 독침으로 해를 끼치는 전갈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끔찍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메뚜기들이 하듯이 나무와 밭을 갉아먹어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독침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고문할 수 있는 다섯 달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뚜기의 한살이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도 끔찍한 고통이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죽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은 그 일을 면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무장한 군대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승리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었습니다. 그것들은 먹이를 찢는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쇠로 된 가슴받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날개 치는 소리는 말들이 끄는 많은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꼬리는 전갈의 꼬리 같았고, 끝에 독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것들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군대입니다.

그것들의 우두머리이며 왕은 무저갱에서 나온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 곧 파괴자입니다. 사람들조차 타락하고 악하다면, 악한 자가 무저갱에서 내던져 올린 무저갱의 천사들, 그 어두운 영적 존재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 파괴자는 이전에도 얼마나 자주 돌아다녔는지요. 애굽의 만아들들을 죽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두 가지 화가 더 올 것입니다.

그 뒤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의 네 뿔 가운데 하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악한 천사를 풀어 주어, 그들이 그들의 악한 일을 하게 하라. 유브라데는 로마 제국과 무시무시한 바사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러자 이때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집행하려고 출정한 거대한 기마 부대였습니다.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원수로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면서도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바대 사람들 같았습니다.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가슴받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말들의 힘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그 꼬리가 독사 같아서 그것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들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이런 심판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던 모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어울렸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쇠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살인과 오컬트 주술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거리낌 없는 음행과 도둑질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님의 이 심판들은 사람들을 크고 분명하게 회개로 부르는 확성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곁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장

그 뒤에 저는 또 다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띄게 힘센 천사였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양께서 일곱 인을 떼신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을 바다 위에 디뎠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땅 위에 디뎠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과 바다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자, 일곱 천둥이 저마다 자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저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모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음성이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그것은 봉인되어 비밀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알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그것은 목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 위에 선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든 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사는 것들을 지으신 분을 두고. 땅과 그 위에 사는 것들을 지으신 분을 두고.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두고. 이 맹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한도, 더 이상의 미룸도 없을 것이다. 끝이 왔다. 그 끝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그날들에 온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 곧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그분이 그분의 종들에게 알려 주신 그대로.

그때 저는 다시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저는 바다와 땅 위에 선 천사에게 가서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어 버려라. 네 입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 먹어 버렸습니다. 그 옛날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제 입에서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제 배 속에서는 그것이 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판에서 나오는 모든 고난과 탄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입에서 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신실하심을 제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분의 새 세계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많은 왕에 대해 예언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제가 먹은 그 책에 이 모든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장

그때 제게 측량하는 막대기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성전의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주후 70년까지 서 있던 그 성전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업신여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미혹된 그들의 동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4,000명과, 믿지 않는 그들의 형제들이 보인 적그리스도적인 저항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간에 나의 **두 증인**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곧 마흔두 달 동안 예언할 것이다. 겸손하게, 그리고 탄식하며, 굶은 배움을 입고. 이 두 사람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거나 잠잠하게 만들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하며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 때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꿀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처음부터 보여 준 그들의 신실함과 증언과 헌신이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을 감수했습니다. 두 증인처럼,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 아래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핍박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심판들은 교회 때문에 이루어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원수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가 전한 메시지로 원수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때로는 사건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증인들의 날들이 끝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소돔과 애굽처럼

하나님 없는 성입니다. 그곳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 대해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성에, 아니 온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서 나온 많은 사람이 악의 이 승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 곧 우상을 섬기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거부하거나 멸시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서로 축하 인사와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의 재앙으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죄와 불의를 끊임없이 지적하던 자들이 마침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적의 목적은 그 옛날 바로도 회개해야 했던 것처럼,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증인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두 신실한 순교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늘에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자 그 옛날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들의 주 예수처럼,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마지막에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가 마지막에는 그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양께서 죽음을 통해 이기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접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승리이며, 동시에 교회 원수들의 끝의 시작입니다.

두 선지자와 그들이 들려 올라간 일로 경악한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칠천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의도한 대로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셋째 화**가 속히 옵니다.

그때 저는 나팔을 든 **일곱째 천사**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그 음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 여호와와 그분의 그리스도, 곧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넘겨졌다. 이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며, 그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며 경배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어두운 시대를 끝내시고 최종적인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은 수천 년 동안 분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인내 끝에 주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죽은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시대에 걸친 주님의 모든 종에게 그들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아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나 큰 자에게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땅과 그 위의 사람들을 망친 자들은 멸망에 넘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웅장한 환상의 끝은, 하늘의 성전, 곧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가장 깊은 성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무언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환상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12장

그때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해를 옷처럼 입은, 만삭의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열두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산의 진통으로 아파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곧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큰 표징을 보았습니다. 거대하고 불처럼 붉은 용이었습니다. 머리가 여럿 달린 물뱀, 히드라 같았고, 시편 74편에 나오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 같았습니다.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일곱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큰 꼬리는 별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영리하며, 위협적인, 아니 살인적인 존재입니다.

이 뱀 같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켜 버리려고 합니다. 여자는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은 그 사내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용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표징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로마 사람들에게 포위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를 일곱 머리를 가진 용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알맞은 표징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부추겨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게 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 뒤에도 그는 거듭거듭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패배였다는 것을.

저는 이런 그림들과 이야기들을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의 신화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가져다가 새로운 빛 아래에서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통치권이 참으로 속한 분을 가리키도록. 그분은 구속자,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이 하늘의 표징들로 그분은 그 모든 옛 신화와 그 신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 표징들은 그 사내아이, 곧 메시아의 탄생일을 알리는 **별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별자리는 이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사내아이가 태어난 마구간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해가 처녀자리 한가운데, 곧 처녀가 배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자리에 있고, 달이 그녀의 발치에 있고, 그 아래에 독을 가진 전갈자리가 있고, 사자자리의 별들이 관처럼 그녀의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드물게도, 행성들의 왕인 목성과 왕의 별 레굴루스가 사자자리에서 서로 맞닿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기원전 3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 별자리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유대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노아**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참된 새 출발이었습니다.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 곧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인 귀신들을 영원히 이기시는 새 노아였습니다. 용은 꼬리로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하늘에서 끌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많은 천사가 그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내아이, 그 남자 아기, 그 어린양이 이길 것입니다.

그 뒤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곳에서 그녀는 1260일, 곧 **3년 반** 동안 돌봄을 받았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한 기간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여러 번, 여러 가지 단위로 만났습니다. 때와 날과 해로. 다니엘도 이미 말한 이 기간이 여기서는 어린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의 상징이며 그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 기간은 그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 영광을 받으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세계 통치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아래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당한 끔찍한 박해가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증언도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 사람들에게 파괴되기 전에 3년 반 동안 포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분께로 가는 여정 위에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처럼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용, 곧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끝의 시작입니다.

그 큰 용은 에덴에서 첫 사람들을 미혹한 옛 뱀입니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미혹하는 자, 아니 온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민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끕니다.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 사내아이, 곧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지금,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에게는 하늘에서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큰 음성이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권능과 권세가 임했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땅으로 내던져졌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쉬지 않고 형제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벌하라고 우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고발할 이유가 더 이상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성도들,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양의 피로 모든 것이 씻겨 나갔다. 그 피로 그들은 마귀를 이겼다. 어린양을 위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신실함으로. 그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을 구속하신 어린양과 똑같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 천사들과 완성된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시대의 전환이 왔으니 그들은 축하해야 합니다. 어린양의 승리는 모든 것을 바꾸며,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 축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메시아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으니, 그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는 큰 분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메시아에게서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 자기를 위해 세울 수 있다는 망상과 그릇된 믿음 속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분노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향했습니다. 곧 메시아를 믿고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녀를 박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광야의 피난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1260일, 곧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돌봄을 받고 **영적으로 보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자,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토해 그녀를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자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물줄기를 그냥 삼켜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해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모든 민족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입니다. 용은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어린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온 땅에서.

13장

그때 저는 다른 표징들을 보도록 바닷가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불처럼 붉은 용과 닮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 뿔에는 왕관이 있었습니다. 머리들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짐승, 아니 차라리 그 괴수는 다니엘이 일찍이 보고 묘사했던 짐승의 형상들과 비슷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세계 제국들과 그 통치자들을 상징했습니다. 사납게 날뛰는 민족들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니엘이 본 그 모든 짐승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결합된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날쌌 재규어나 표범처럼 보였습니다. 그 발은 만족할 줄 모르는 곰의 발 같았습니다. 그 힘센 입은 사자의 입처럼 컸습니다. 마귀적인 세계 권력을 구현하는, 무시무시한 맹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누가 이 짐승에게 권세와 다스릴 보좌를 주었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짐승은 용의 화신, 곧 용이 육신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용이 이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칼에 맞아 죽게 되어 짐승이 막 죽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치명적이었는데도 금세 나았습니다. 그것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그 짐승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똑같이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이 짐승과 싸우거나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놀랐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작은 어린양에게도 죽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흉내처럼, **패러디**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용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짐승은 그의 아들이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용은 보지 못하고 짐승만 보았습니다. 짐승은 용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왕과 황제 같은 통치자인 그 짐승에게, 교만하게 큰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양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그것은 마흔두 달 동안 제멋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에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이에게 뻔뻔스럽게 도전했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강하고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 짐승에게 모든 성도와 싸우고 그들을 이기기까지 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뿌리 뽑으려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도를 죽였습니다.

짐승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너무도 어려웠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권세로 다스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그분의 보호를 거두셨습니다. 짐승은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짐승은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 땅에 살며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들은 이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양의 생명책에.

귀 있는 사람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디에서나 사로잡힘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칼에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환상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안만 일어납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두운 시대에 성도들,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내와 끈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실함과 믿음이.

저는 제가 사는 시대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도 밧모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미 쓴 것처럼, 서머나와 버가모에서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세계 제국의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제가 본 모든 것이 들어맞을 그런 자가, 그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까?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자가?

하나님께서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목표에 이르십니다. 어쩌면 땅과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지막 때의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둘째 짐승**도 함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초현실적인 잡종 같은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짐승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듯이. 그것은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용이 이 짐승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용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첫째 짐승과 연결되어 있었고, 첫째 짐승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일을 했습니다. 죽음의 상처가 그토록 기이하게 나온 그 짐승에게. 둘째 짐승은 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둡고 마귀적인 삼위일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을 흉내 낸 패러디 같았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곧 그 통치자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또한 한 사람, 곧 어린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멸망으로 이끄는 선전 장관을 상징합니다. 그는 권세를 받아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로 그 일에 성공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표적들은 너무도 인상적이었고 첫째 짐승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온 이 첫째 짐승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처가 나아 다시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첫째 짐승을 구현한 이 우상에게, 어린양처럼 보이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 살아 움직이고, 말할 수 있으며,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찾아낼 지능까지 갖게 할 능력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결과로 이 살아 움직이게 된 우상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선전 장관인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눈에 보이는 표를 지니게 합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이 표로 증명한 사람만 사고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입입니다. 짐승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666입니다.

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던, 이미 어렵고 시련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본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제 시대를 비추었고, 앞으로도 거듭거듭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본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래를, 아마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 곧 어린양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의 때를 묘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를 거두시고, 어둠의 권세들과 그들이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며 인류를 미혹하고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과 재앙을 겪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뒤에 그분의 보호를 거두시고, 사람들을 그들 자신과 어둠의 악한 권세들에게 내맡기시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14장

제가 아직 이 어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속으로 몹시 흔들리고 있을 때, 제 눈길이 다시 위로, 하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빛 속으로. 그곳에는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하늘의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어린양과 함께 이마에 그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인침을 받은 144,000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는 앞서 보았던 저 큰 국제적인 무리처럼, 또 다른 이기는 자들을 보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힘찬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 같았고, 큰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프를 타며 노래하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 노래**를 연주합니다. 보좌 앞에서, 그리고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 앞에서. 이 노래는 144,000명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녀가 신랑을 사랑하듯 어린양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릇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어둠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입니다. 어린양과 성도들이 이길 것이고, 그들의 환호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 땅 위를 날았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시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해당됩니다. 두 짐승이 인류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이상 없게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 뒤를 두 번째 천사가 따랐습니다. 그에게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위로의 소식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성은 음행과 불신실함의 정욕의 포도주로 모든 백성을 취하게 만들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에 대해 저는 그 밖에도 아주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전 지구적이고 고도로 발달한 세상 체제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고 환영받지 못하시는 성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 표를 자기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채 그분의 진노의 잔에 담겨 있다. 그렇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영원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어린양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과 이 고통의 연기는 올라가며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불은 영원히, 세세토록 탑니다.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의 불 속에서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하면서도 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의 외로움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바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책으로 가득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것을 쓰라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젠가 그분께 버림받아 스스로에게 내맡겨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얼마나 한없이 좋은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강렬한 그림들은 이보다 더 인상 깊을 수 없으며, 가장 다급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되든, 아무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짐승이 다스리는 죽음의 시대에 성도들이 자신을 내어 주며 견디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큰 시련 속에서 그 시기를 견디는 일은 그들에게 힘들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서는 그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원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 성령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 일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저는 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인자이셨습니다. 다니엘도 보았던 그대로. 그분은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왕관을 쓰셨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 인자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왔습니다. 곡식이 거의 말라 버렸으니 지금이 추수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셨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오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추수하여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을 굳게 붙든 모든 사람들.

그분의 백성에게 이것은 이 마지막 시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복된 추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추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닥칠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하늘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천사였습니다. 그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낫을 보내어 포도를 거두어라. 포도나무를 거두어라. 포도알이 익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땅의 포도나무를 거두어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를 짓밟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그 틀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힙니다. 포도주 틀에서 붉은 포도즙이 피처럼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의 굴레에까지 닿을 만큼 많았습니다. 반경 300킬로미터에 걸쳐.

끔찍한 장면입니다.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곡식이 자라고 익어 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악과 불법이 건잡을 수 없이 퍼지면 추수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그분께 도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했고, 그것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따라 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15장

그때 저는 하늘에서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입니다. 그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터지기 전에, 제가 앞서 보았던 일, 곧 폭군 같은 두 짐승의 광포한 날뛰이 끝났습니다. 그 짐승은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가요. 짐승은 성도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신실했습니다.

저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물가, 하나님의 보좌 곁, 제가 처음에 이미 보았던 그곳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신비한 수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방금 안전한 물가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짐승에게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 옛날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는 바다에 빠져 최후를 맞았습니다. 두 짐승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이여, 주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께서는 그 길로, 주의 주권 가운데 민족들을 주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주께서 민족들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토록 어리석어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만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와 같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고, 그들이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음을 인정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와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그 대접들에는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성전 전체가 가득 찼습니다. 천사들이 일곱 진노의 대접을 다 쏟을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6장

그때 저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고 천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지독하고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의를 표한 사람들에게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달리 그분의 백성이 대부분의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 전체가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죽었고, 그 안에 살던 모든 것도 죽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끊임없이 거역했던 그때의 애굽에서처럼.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물의 근원과 강들에 쏟았습니다. 그것들도 피가 되었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물을 맡은 천사들, 곧 영역을 맡은 천사들, 이 경우에는 자연을 맡은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한 번도 지음을 받으신 적이 없는 주님. 거룩하시고 비길 데 없으신 분. 죄를 건디실 수 없는 분. 주께서 물을 피로 바꾸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의롭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죄한 피를 까닭 없이, 폭력으로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밖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그들이 흘린 피가 기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죽이게 한 수많은 사내 아기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제단 아래에서 저는 이미 모든 순교자를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이여! 주의 심판과 주의 분노와 진노는 참되고 의로우며 정당합니다.”

그때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햇벌의 열기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불에 그을리듯 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큰 열기에 그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그들은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의 다스림이 미치는 온 지역이 어두워졌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사흘 동안 칠혹같이 캄캄해져서 어둠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던 것처럼. 이 어둠은 몸과 영혼에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어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의 왕인 짐승이 본을 보인 그대로. 그들은 자기 삶의 방식을 회개하지 않았고, 최악된 행위를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고통과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 큰 강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 자연적인 경계가 없어지고,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용의 입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입과,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들은 개구리처럼 생겼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입니다. 이 영들은 땅의 모든 왕에게 나아가, 선전용 표적으로 그들을 미혹하여 모두 전쟁을 위해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전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나을 것입니다. 엘 샤다이,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분의 큰 날입니다.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데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온다. 깨어 조심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저는 이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분께 직접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걸려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정해진 한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마겟돈으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시온 산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 메시아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마귀적인 삼위일체 사이에 마지막 큰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산, 곧 모임의 산을 공격하려 합니다. 땅의 왕들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세상 통치자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묘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미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역사가 될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에서,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에게서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되었다!”

그러자 음성들과 번개와 천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벌써 **네 번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건들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엄청난 현상들이 세상의 종말을 묘사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진은 인류 역사에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진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모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곧 로마, 그 큰 음녀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옛 세상 질서의 끝이었습니다. 모든 섬이 사라졌습니다. 산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란트 무게, 곧 40킬로그램이나 되는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재앙을 끝내실 수 있는 분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재앙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보다 훨씬 큼니다.

17장

그때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곧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을 네게 보여 주겠다. 그 여자는 모든 사람을 미혹했다. 먼저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하며 그 여자를 즐겼다. 그들은 바벨론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이 불신실한 음녀와 그 여자에게 빠져 버린 왕들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의 정육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했다. 이런 의미에서 옛날에 거대한 수도 니느웨는 선지자 나훔에게, 두로 성은 이사야에게 음녀라고 불렸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음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경건의 장소로서, 그런 삶의 방식을 독처럼 사방에 퍼뜨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저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몸으로 간 것인지 영으로 간 것인지 -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큰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낮이 익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던 첫째 짐승이었습니다. 붉은 용, 곧 사탄에게 조종받고 영감을 받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위에 앉아 그 짐승에게 태워져 가는 여자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자는 홀릴 듯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진주와 보석으로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거기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잔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음란의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도 무언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머니

땅의 가증한 것들.

이 여자는 처형당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것, 이 거대한 수도의 온갖 흥취함, 그리고 그 여자에게 홀린 모든 가담자들까지 -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의 마지막 큰 보루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로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큰 도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몹시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음란함과 끝없는 탐욕과 사람을 짓밟는 폭력을 보아야 하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표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무언가 실제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일까요? 천사가 저를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너에게 이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 짐승은 곧 다시 돌아와 무저갱에서 올라오려 한다. 그러나 그 짐승의 최종 멸망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통치자이자 독재자인 적그리스도를 가진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다시 참되신 하나님을 흉내 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그분은 - 짐승과는 달리 - 어린양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크게 감탄할 것입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멸망했는데, 이제 더 강해져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도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살아 계신 어린양 예수를 비꼬아 흉내 낸 것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에 해당합니다. 그 여자는 그 산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은 또한 일곱 왕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다섯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살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 곧 일곱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 그림 전체가 일곱 언덕을 가진 로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시에 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역사 속의 한 중간 정거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것의 성취는 제 시대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의 성취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무언가입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의 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앗수르,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에 이르는 세상 제국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세상 제국은 로마입니다. 그다음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국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덟째** 왕이 올 것이었습니다 - 거짓 메시아를 왕으로 둔 마지막 세상 제국입니다. 이전의 모든 제국과 마찬가지로, 그 핵심과 본질에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들과 그 통치자들을 신으로 경배한 세상 제국입니다. 이 마지막 나라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전의 모든 나라는, 다니엘이 묘사한 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둘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둘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 세상 제국들을 나타내는 신상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멸망했고 다시 살아난 그 짐승, 그것이 **여덟째** 왕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전의 모든 왕과 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오면 곧바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천사가 방금 제게 계시해 준 그대로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뒤를 따르게 하는 이방의 메시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께 붙잡히고, 정체가 드러나고, 패배할 자입니다. 이렇게 셀 때 **아홉째** 왕은 영원히 계실 참된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열 뿔은 다니엘 7장에도 묘사된 것처럼 왕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아직 자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때, 곧 그가 무제한의 권세를 받는 짧은 기간인 3년 반이 오면, 이 열 왕이 그들의 나라와 권위를 받을 것입니다. 열 왕은 모두 완전히 짐승을 섬기며 그에게 의존하게 되고, 하나의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완전한 자만과 눈멀 속에서, 하늘에 계신 어린양과 전쟁을 벌이려 할 것입니다. 어린양을 보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승산이 없습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분은 그분 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양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어린양께서 복음을 통해 자기에게로 부르신 사람들, 택함을 받고 끝까지 어린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이 어린양을 따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서. 어린양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짐승과 음녀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는 승리자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땅의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전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짐승과 그의 열 뿔, 곧 열 왕이 갑자기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 여자가 짐승에게 태워져 다녔고 그들이 한패였는데도 말이다. 짐승은 여자의 옷을 찢고, 그 여자를 먹어 치우고, 그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짐승은 쓸모없는 것은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짐승은 자기 곁에 다른 권세나 위대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짐승은 사람들의 경배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요구한다.

짐승은 왜 갑자기 그 여자를 그토록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과 열 왕의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강요도 폭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자, 바벨론은 그녀의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로써 그 여자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적인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이제 더욱 커진 짐승의 통치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 여자는 마지막 때의 거대한 세계 수도입니다. 로마가 그 어느 때 그랬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괴한 신들, 그 퇴폐,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 성공을 향한 열망까지, 로마와 완전히 닮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교적 영혼의 매력도 닮았습니다. 일종의 통합 종교로서, 다른 모든 도시로, 아니 온 땅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잔, 마비시키고 도취시키는 잔이 온 땅에 건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전, 문자 그대로의 도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아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 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것은 몇 배나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짐승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왕이었습니다.

18장

그때 저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광채와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덧없는 영광의 허세와는 반대로, 참되고 신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땅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성이 많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들은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거인들의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더러운 영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새들을 그 성이 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바벨론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곧 용의 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영향을 미쳐서, 모든 것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거침없는 정욕, 돈을 사랑함, 우상 숭배와 마술, 퇴폐와 향락, 그리고 성적 방종의 포도주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땅의 모든 왕이 그 성과 놀아났고 그 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그 성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의 증인들을 향한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 성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성의 재앙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의 죄가 쌓여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그 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갚은 대로 그 성에 갚아 주어라! 그러나 그 성이 행한 모든 악에 따라 갑절로 갚아 주어라. 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한 악에 따라. 그 성이 자기 잔에 담았던 것, 곧 성도들의 피를, 갑절로 보응하여 돌려주어라.

그 성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며 살았고,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만큼 -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돌려주어라. 그 성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왕으로 여기 안전하게 앉아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왕이 나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슬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

세상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진보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나 이 진보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처음부터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재앙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닥칠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입니다. 그 성은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그 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그 맹수에게 이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멸망 - 바벨론의 파괴 - 을 두고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특히 그 성과 놀아나서 - 음녀 자신처럼 - 흥청망청 살 수 있었던 모든 왕이 그럴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그 성이 타는 연기를 멀리서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 강하고 힘센 성이여! 단 한 시간 만에 네 심판이 이르렀고, 네 부와 영향력이 무너져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었구나.”

땅의 상인들은 경악하며 음녀의 죽음을 두고 울며 애통합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체제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향나무와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로 만든 그릇, 구리와 철과 대리석, 계피와 향료와 향유, 송진 제품과 유향,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수레, 노예와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었습니다. 네가 누리던 온갖 좋은 열매가 더 이상 없다. 너의 광채와 반짝임은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거래하여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성이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악하며 말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고운 세마포와 자주 옷과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금으로 도금하고, 보석과 진주로 뒤덮였던 성이여.”

상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엄청난 부를 황폐하게 만들고 세계 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데 단 한 시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 선장들과 모든 선원도 바다에서 큰 성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연기구름을 하늘의 표징처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퍼하며 울면서 외쳤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그 성이 상선을 가진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한 시간 만에 끝나고 산산이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멸망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 여러분, 기뻐하며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집처럼 편히 지내 본 적이 없는 성에. 여러분이 그 멸망을 예언했기에 여러분을 미워했던 성에. 여러분이 떠나 나온 그 성에.

그때 저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하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처럼 다시는 그 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피리 부는 사람들, 하프 타며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가들,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그 성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은 문화와 끝없는 오락과 기분 전환을 공급하며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술가들과 그들이 만든 예술도 더 이상 그 성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던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등불의 빛이 네 안에서 다시는 비치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기쁜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상인들은 땅의 권세자들이었고, 네 상품을 곳곳에 실어 날라 모든 사람에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취와 같았다. 네 장사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마술과 같았다. 네 마약, 아니 네 우상은 소비였고, 돈은 mammon이었다.

동시에 큰 성인 네 안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피의 증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음성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음녀는 이 모든 선물과 능력을 주신 분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폭력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19장

그때 저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리에게서 나는 소리였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완전히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음행으로 온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폭력으로 흘린 그분의 종들의

많은 피를 그분이 갚으라고 요구하셨고, 그 여자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폭력으로 생명들을 앗아 갔습니다 - 그리고 이제 자기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성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은 영원한 잔해 더미로 남습니다.

나 요한은 그 성에서 이 모든 일을 본 뒤에 이제 다시 하늘의 관점을 얻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분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낮고 작은 자들도, 큰 자들도 똑같이!”

그때 저는 전에도 한 번 들었던 큰 무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힘찬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이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는 기쁨을 마음껏 터뜨리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때가 되었다. 목표에 이르렀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과 어린양 곁, 영원한 집에 있다. 모든 원수가 패했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통치를.”

제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뒤로, 저는 이미 여러 번 세계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구원 역사의 목표에 이르는 길이 제게 보인 것은 이번이 아마 **네 번째** 일 것입니다 - 환호와 경배와 큰 음성들과 천둥이 함께했습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의 절정을 이루는 마무리는 앞선 환상들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혼인 잔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어린양의 혼인**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아내가 이 놀라운 혼인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양을 따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에게 혼인 예복이 주어졌습니다. 빛나고 흰 고운 세마포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참된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왕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소박했지만, 참되고 깊고 순결했습니다. 거짓 신부, 곧 음녀 바벨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음녀는 먼저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신부는 어린양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여인.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녀가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인 예복은 성도들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비추어 냅니다. 그곳, 그 큰 날에 그 일들이 알려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며 예수를 위해 행한 것 가운데 그분이 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랑이신 어린양은 신부가 그분께 어떤 존재이며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천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되고 믿을 만한 말씀이다!” 저는 그것을 이미 제 주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고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어린양의 사랑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영원히.

저는 이 일로 너무나 감동하고 마음이 사로잡혀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종이다 - 너와 같이,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결코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들이 죽었더라도 그렇다. 천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께 경배하라. 예언의 영은 예수에게서 나온 증언이며 예수에 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예수를 증언하시고 그분을 높이십니다.

이제 제게 **다섯 번째**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하늘 전체가 땅을 향해 열리며 땅의 끝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곧장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몸소. 예수께서. 그분은 **흰 말을** 탄 **기수**로 오셨습니다.

그분, 승리자, 나의 예수. 그 기수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 불렸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이 일을 맡기시고 권한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행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저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꿰뚫어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눈입니다. 그분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왕의 존엄은 오직 그분께만 속합니다. 왕관을 쓴 짐승이나 용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그분만 아시고 다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이름,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옷이 그분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피에 적셔져 있었다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 자신의 피였습니다. 이 희생의 죽음이 그분께 이제 이 영적인 전투에 나아갈 권리를 주었습니다. 다른 이름들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로고스,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늘의 군대, 곧 천사들과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고운 세마포, 승리의 색인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첫째 기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반역하는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리와 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군사적이고 전쟁의 위력을 담은 그림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얻었습니다. 그 승리는 이 나타나심의 날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피에 굶주린 잔인한 전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짐승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수의 천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의 진리로 판결을 내리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의롭고 매수되지 않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어린양이시며 언제나 어린양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시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양날 선 칼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동산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붙잡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눈에 보이는 임재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분은 철장을 가진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의 돌봄과 애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는데도, 여기 마지막 대결에서 은혜는 침묵하며 숨습니다. 이제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반대가 끝났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 기수가 그분의 군대와 함께 하늘에서 땅을 향해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을 먹도록. 자유인과 종, 큰 자와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살을.”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던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말은 끔찍했지만, 전형적인 묵시 문학의 말투이기도 했습니다. 이 강렬한 언어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이 걸어간 이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모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땅에서 거대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통치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말 위에 앉으신 분과 하늘에서 온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연합하여 만왕의 왕께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눈뿔이 얼마나 클 수 있습니까? 자만이 얼마나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며 그분께 도전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이 대결은 결국 언제나, 짐승은 사탄적인 미혹자였고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도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죽은 자가 나오는 학살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저항은 소용없었습니다. 짐승과 함께,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섬기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도 제거되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보았던 두 사람이 모두 붙잡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진 것은 소멸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못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짐, 외로움과 공허, 그리고 어둠의 전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끝이 없는 장소이자 상태입니다. 출구도 도망갈 길도 없는 곳입니다.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땅 위의 역사는 끝났고, 하나님께는 그들을 둘 다른 곳이 이곳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겪은 모든 심판도, 마치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맞섰을 때처럼, 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본능만 따랐습니다.

두 짐승을 따랐던 나머지 사람들은, 흰 말을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끄신 분의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의 부름에 응한 모든 새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가 여섯째 진노의 대접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의 왕들을 이곳,

아마겟돈으로 모으려고 나갔던 개구리 영들을 따른 군인들이 그토록 많았습니다.

세상의 구속자이시며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맞선 싸움을, 그것이 시작된 것만큼이나 빨리 끝내셨습니다. 악한 자와 그와 함께 악이 패했습니다.

20장

그때 저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비소스(Abyssus), 곧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 곧 옛 뱀, 사탄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1000년 동안 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던져지고 갇혔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이 잠기고 인봉되었습니다. 천 년 동안 그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할 수 없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그는 잠시 풀려나야 합니다.

저는 사탄이 단단히 감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미혹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자인 그에게 다시 한번 악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 비극이 또 한 번 되풀이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음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좌들이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짐승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온 순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목 베임을 당했고,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머리를, 그리고 그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적인 독재자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그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도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 피의 증인들, 순교자들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때가 왔습니다. 1000년 동안.

저는 선지자 다니엘의 일곱째 장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을 죽인, 가장 무서운 넷째이자 마지막 짐승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친히 보좌와 권세와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짐승이 3년 반 동안 계속된 그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이겼다면, 이제는 순교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지고,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 아니라 **1000년** 동안입니다.

죽은 나머지 모든 사람은 -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른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10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저는 유대인들의 글에서, 메시아가 오신 뒤 새 창조 이전에 세워질 중간 왕국에 대해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사상 세계와 헬라 사람들의 신화에서 온 다른 인물들이 새롭게 해석되었던 것처럼, 이것도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그림은 짐승의 멸망과 순교자들의 승리를 인상 깊게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그림은 짐승에 대한 순교자들의 승리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겨냥합니다 - 기간이 제한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1000년을 짧은 3년 반과 대비해 보아야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이 부활한 모든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속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은 **둘째 사망**을 당하고, 이로써 이 어두운 나라는 끝납니다.

마귀적인 삼위일체,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이 그림은 한 번 더 강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순교자들이 거둔 승리가 결코 다시 뒤집힐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보여 주기 위해, 마귀에게 민족들을 다시 한번 미혹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 년이 지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사방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는 곡과 마곡을 전쟁을 위해 모을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상징적인 군대입니다. 그들은 땅의 넓은 평지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 곧 함락될 수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빠르게, 싸움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거대한 군대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민족들을 미혹하던 자, 곧 마귀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민족들을 부추겨 하나님과 어린양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겼던 사탄적인 삼위일체가 그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성도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귀가 다시 한번 미혹하는 것은 짐승의 통치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흰 말을 타신 분이 눈에 보이게 오신 뒤에는 권세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떤 새로운 반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1000년 뒤에 다시 짓밟힐 위협에 놓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제가 곧 보게 된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나 요한은 이제 세계 역사의 끝, 그리고 처음의 타락한 창조 세계의 끝이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 앞에서 하늘과 땅, 온 우주가 그야말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서 있었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모두가 그곳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예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심판 날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판단받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창조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책들에는 사람들의 생애와 모든 생각, 동기, 행위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장 용량이 무한한 완벽한 기억 장치처럼.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책 하나도 있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그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의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정말로 모든 곳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은 최종적으로 패했고, 죽은 자들의 나라도 함께 패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만물의 질서가 여기서 끝을 맞았습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 마지막이자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그곳은 소멸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게 될 상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아주 정확하고 의롭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중요한, 아니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린양을 믿고 따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양의 이 생명책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한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책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들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책들에서 많은 선한 일이 발견되었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이 책에 없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넘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 가도록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로운 형벌, 곧 그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한 선한 일까지도 고려하시는 곳입니다. 생명책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그들 주인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자격 없이, 은혜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위해 죽으신 어린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이 이토록 인상 깊은 것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래도 좋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이 강렬한 언어가 닿아야 합니다.

21장

나 요한은 하늘 여행에서, 우리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알고 있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 아니 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본 모든 표징과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옛 땅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짐승이 올라왔던 비유적인 의미의 바다, 위협적이고 들끓는 민족들의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새 땅을 제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과 강과 식물과 호수가 있는 목가적인 자연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앞서 다른 많은 것이 그랬듯이, 또다시 상징과 그림으로, **도시**로, **신부**로, **동산**으로 제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어린양과의 관계, 그분들의 가까이 계심과 임재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처음 창조 때처럼 산과 강과 식물과 호수와 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창조는 참으로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저는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보좌에서 나와. 여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완성된 공동체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그 성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본 모든 그림은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 차원을 지니고 여러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옛 땅의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집, 그분의 거처를 사람들 곁에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새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사귀를 누리실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됩니다. 믿음이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 없는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수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 옛것, 타락하고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다”. 제가 본 것을 보고 제자들은 것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제게 꼭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을 생각하면, 그토록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할 수 있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내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주겠다. 값없이, 거저. 몸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목마름과 참되고 진정한 생명을 향한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다.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새 창조를, 영광스러운 집을. 저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그리워하시는지, 그분이 그들 모두를 그분의 새 창조에 함께하도록 얼마나 부르시는지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 대신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생명수를 마시기로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기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이 새 창조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싸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의기양양하거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를 향해 단호하게. 가벼운 걸음의 개선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고 타협 없이,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갑니다. 새 세상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새 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두려워 예수를 마지못해 반쪽 마음으로만 따른 겉쟁이들,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살인자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귀신들과 관계를 맺은 점술가와 주술사들, 돈과 명예와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상 숭배자들 - 그리고 삶 전체가 거짓이었던 거짓말쟁이들 - 이들은 모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수, 곧 하나님의 이 값없는 선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에, 그들의 영원한 존재는 자책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왔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겠다.”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저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옛날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보이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고, 아니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성은 값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빛은 수정 같은 벽옥에서 나오는 빛 같았습니다.

그 성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늘 겪던 불안과 쫓김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존과 보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에는 성문이 12개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과 밖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문지기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했습니다. 성문들 위에서 그 지파들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제가 보좌 앞의 큰 국제적인 무리를 보기 전에 이미 알게 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동쪽에 문이 셋 있었고 -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도 그러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의 아랫부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열두 기초석을 보았습니다. 이 기초석들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요한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게 말하던 천사는 손에 자, 곧 금 측량 막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측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성은 네모반듯했습니다. 정사각형 같았습니다. 그가 잴 길이는 거의 2300킬로미터였습니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 그 성은 정육면체, 곧 입방체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길이가 완전히 같았습니다.

저는 옛 도시 바벨론과 니느웨, 그리고 로마도 정사각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까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정육면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정육면체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들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곁에 거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며 땅을 그분의 지성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규모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이며 상징적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측량했습니다. 그 너비는 12 x 12, 곧 144규빗이었습니다. 천사의 규빗은 사람의 규빗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벽은 두께나 높이가 약 70미터였습니다. 크고 거룩한 성의 안전을 보여 주고 보장하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성이 빛나는 것을 보았듯이, 그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보좌 위에서 보았던 분도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성 전체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는 우리 시대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기초석은 저마다 값진 보석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장신구 같았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이 보석들 대부분은 제가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열두 문은 -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열두 개의 거대한 진주였습니다. 문마다 흠 없는 거대한 진주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큰길, 그 성의 생명줄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의 모든 길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자신과 어린양이 그 성의 성전이십니다. 성

전체가 이미 하나의 성전이었고, 정육면체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 성전의 지성소처럼.

해와 달이 있겠지만, 그 성에는 해의 빛도, 밤에 비추는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춥니다. 그 성의 등불은 어린양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입니다. 언젠가 해가 다 타 버린다 해도, 그것은 새 땅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작은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홉째 재앙이 닥쳤을 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양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진노의 대접 때에 이미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임했었습니다. 이제 완성 속에서 어린양이 그 성의 빛이셨습니다. 성 밖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성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있기는 하지만 - 성도들은 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 밖에 -, 새 예루살렘의 이 여러 뜻을 품은 그림은 새 땅을 보여 줍니다. 고동치는 생명, 창조적인 일, 발견, 문화, 음악, 예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재력으로 선물하신 그 밖의 모든 것을 보여 줍니다.

땅의 민족들은 이 성의 빛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왕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 땅의 수도로 와서, 그 성의 영광과 풍요를 위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성문은 밤에 더 이상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원수와 도둑이 숨어 기다리는 밤의 위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밤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히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의 긴 낮과 같을 것입니다.

민족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 그들이 가진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온갖 영광스러운 재산을 이 하나님의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 성을 기쁘게 하고 높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에 씻기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강조하셨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22장

이제 저는 이 성 안에서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제 제게 강 하나를 보여 주었습니다. 흐르는 물의 강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 물은 수정처럼 빛나고 반짝였습니다. 이 물줄기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도 이와 비슷하게, 점점 커지는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강이 정말로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곧장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은 모든 것을 생명과 자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 한가운데에 금으로 된 큰길이 있었고, 그 곁에 생명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길과 강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1년에 열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열매의 양과 다양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들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몸이나 마음의 병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민족도 다시는 전염병이나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의 치유하는 힘이 그들을 지켜 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저주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드린 그분의 희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에덴에 있던 낙원보다 더 새롭고 더 나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자 근원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하나의 보좌가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어린양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로 이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좌를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모두가 한때 하나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이 은혜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위협의 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언젠가 다 타 버려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어린양이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 위에 비추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땅을 정복하라는 태초의 창조 명령을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대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기쁨과 보람 속에서 새 창조 안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새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 창조를 여러 차원에서, 바뀌는 은유들 속에서 신부로, 성으로, 동산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온 땅으로 펼쳐진 지성소처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 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서 모두에게 보이게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사귀을 누리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옛날 에덴에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양과 대화할 것입니다. 많은 질문을 드리고 -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며 믿을 만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 주셨다. 보라! 나 예수가 속히 온다. 그렇다 - 뜻밖에!

이 책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말씀과 그림의 뜻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양의 승리에 힘을 얻어, 우리는 이 책의 메시지를 지키고 어린양을 따릅니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압도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전에도 한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우리 천사들은 너의 형제자매들과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모든 사람을 섬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다음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옛날 다니엘이 그렇게 해야 했던 것과는 다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위한 것이다.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해도 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더러워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계속 옳은 일을 하고, 거룩하게 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굳건히 서 있으며,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빠르게, 뜻밖에 온다! 그러니 언제든지 기쁨과 기대로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갈 것이다. 각 사람이 받을 만한 상, 곧 그의 일과 행위와 수고에 따른 상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이름으로 나 예수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서명한다.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기 삶의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결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나 예수와, 나의 죽음을 통한 용서를 믿음으로 자기 옷을 빨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영광의 진주 문을 지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밖에 남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매여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며 구속을 거절하는 개들은 밖에 남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관계를 맺은 마술사들, 성적 쾌락을 자기의 신처럼 섬긴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람이나 천사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 약속된 메시아다. 다윗의 참된 자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 별이다. 오래전 발람이 말했던, 이스라엘에서 나올 그 별이다. 세상의 구속자이며 세상을 완성하는 자로서, 다시는 밤이 뒤따르지 않는 영원한 아침을 가져오는 자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부 된 교회가 말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여! 그리고 누구든지 이 부름을 듣는 사람은 함께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오십시오! 우리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 하나님을, 평화를, 생명과 의미와 소망을 목말라하는 사람은 - 생명을 마시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은혜가 계속되는 동안, 그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공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도록 마음들을 얻으려 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이 책에 무언가를 더하여 이 책의 메시지를 왜곡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책의 메시지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감추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리를 그에게서 빼앗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증언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온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대답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때에 모든 곳에 있기를 빕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그리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끝없이 바라보고, 싫증도 피곤함도 없이 사랑하고 찬양할 것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von Hippo)

맺는 말

이 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지, 그러면서도 그분에게서 오지 않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모든 좋은 말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해 주십시오: info@kirchefüralle.de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복음서들도 이런 형식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때에도 저희에게 편지해 주십시오.

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예수의 생애에 관한 기록, 곧 복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마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 본문을 소리 내어 두 번 연달아 읽으십시오.

본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 본문은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다시 모이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높이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교제할 기회를 찾으십시오.